수용자 종합문예지
통권 450호 | 2020 여름호



새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직원 글 | 테마원고 | 수기 | 수필 | 기획기사 | 용서의 글 | 시 | 독후감 | 서간문 | 감상문

2020 여 름 호
통권450호

새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새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CONTENTS | 목차

직원 글

04 수박 | 장흥교도소 교위 정우성
05 만땅! | 충주구치소 교도 박건호
06 '멋진 신세계'를 읽고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도 박건후

테마원고 – 한여름 밤의 꿈

08 한여름 밤의 꿈 | 박준영
09 한여름 밤에 꿈 | 조효선
10 한여름 밤에 꿈 | 김신효
11 너는 꿈이다 | 박만석
12 한여름 밤의 꿈 | 김영성
13 한여름 밤의 꿈 | 김광모
14 절망 속, 여름이 가져다 준 꿈 | 이승훈
17 한여름 밤의 꿈 | 김호근
21 한여름 밤의 꿈이길… | 구재훈
24 한여름 밤의 꿈-인생은 연습이 없다 | 박용우
28 한 여름밤의 꿈에서 깨어나 | 박정수
32 한여름 밤의 꿈 | 김영현
35 한여름 밤의 꿈 | 황태용
38 한여름 밤의 꿈 | 최해성
42 한여름 밤의 꿈 | 홍석규

수기

44 손 씻겠습니다 | 이정환
46 여행을 떠나면서 | 김태종
48 이른 아침 | 장종원

수필

49 희망나무 | 박자호
51 풀꽃에게조차 부끄럽다 | 박광
53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낸 사랑의 바이러스 | 조금성

기획기사

57 미술에 표현된 전염병, 그 공포의 기록 | 동덕여대 교수 김상철



2020년 여름호 (통권 450호)

1948년 4월 1일 창간 2020년 6월 15일 인쇄
행정간행물 발간등록 : 111-1270000-000299-08
편집인 : 윤창식 발행처 : 법무부 인쇄 : 서울남부교도소
디자인실 : 한양애드 (02)2279-0814
우편번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회복귀과 : (02)2110-3438
e-mail : saegil@hanmail.net

용서의 글

65 형제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 고병진
68 용서를 구합니다 | 김지애
70 용서를 구하는 글 | 선광영
72 용서를 구합니다 | 한동훈
75 용서의 글 | 김지현
78 용서를 구합니다 | 황진성
81 용서를 구합니다 | 송창민
84 용서를 구합니다 | 김재홍

시

87 초심(初心) | 정준혁
88 볼펜, 너는 나의 벗 | 채규철
89 부유(富裕) | 정정식
90 꽃길 | 이종수
91 달빛조각사 | 정욱진
92 추억 | 지창훈

독후감

93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를 읽고 | 박승철
96 『언어의 온도』를 읽고 | 황우진
99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를 읽고 | 김권희
102 『악당은 아니지만 지구정복』을 읽고 | 전광재
105 『48분 기적의 독서법』을 읽고 | 구철규
110 『왜 하필 교도관이야?』를 읽고 | 안광희
113 『미 비포 유』를 읽고 | 유소피아
115 『독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를 읽고 | 최성우

서간문

119 아들아! 너의 첫 번째 기회를 응원한다 | 이재균

감상문

122 새길 봄호를 읽고 | 홍순창
126 새길 봄호를 읽고 | 김종수

직원 시

수 박

정우성 | 장흥교도소 교위

장대비가 지난 자리
비구름은 사라지고

수박은
오늘도 넝쿨 끝에 매달려
후덥지근한 하루를 맞는다.

뜨거운 태양
더위가 익을수록
수박의 꿈도 커져만 가고

계곡의 차가운 물줄기
꺄르르르 아이들의 웃음소리
시원한 여름을 상상하며

한여름 밤
부끄러운 수박은
벌겋게 익어가는 가슴 안고
달콤한 꿈을 키워 본다.



만땅!

박건호 | 충주구치소 교도

만개한 벚꽃
분홍으로 피어올라
햇빛을 머금고
온 세상 물들이고

봄비 내린
아침 그 기운에
낮게 깔린
젖은 풀과 흙냄새
세상에 그윽해도

너가 머문
내 마음보다
가득할까.

내 세상은
너로 가득차서
너로 물들었고
너로 그윽하다.

직원
독후감

'멋진 신세계'를 읽고

박건후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도

멋진 신세계는 1932년 영국의 소설가이며 비평가인 올더스 헉슬리에 의해 쓰인 미래를 예상한 디스토피아적 소설이다. 디스토피아적이란 점에서 〈1984〉와 유사하며 또한 통제된 사회란 점에서 〈동물농장〉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멋진 신세계속의 사회는 고도로 통제된 사회이다. 이 책의 세계에서는 모든 인간이 자연적인 생식을 통한 출산이 아닌 인공적인 생식을 통해 '생산'됐으며 단순히 인공생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앱실론이라는 5개의 계급으로 나뉘어 생산된다. 이 생산과정 또한 놀라운 것이 태아를 생산할 때 인공적으로 공급되는 산소의 양을 조절하여 계급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차이를 두며 만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방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생산된 인간들은 5개의 계급에 따라 교육되게 되는데 어릴 때부터 최면에 의한 교육을 받게 되어 어떤 불만도 말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며 살아가고 또한 '소마'라는 마약을 복용하며 이 행복함을 유지한다. 과학에 의해 생산되었으니 이들에게는 아버지, 어머니란 단어는 굉장히 터부시 되며 부모가 누구냐는 물음은 굉장히 무례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 책의 주인공인 버나드라는 인물은 베타 계급의 인물이지만 생산시의 산소 주입의 오류로 다른



베타 계급보다 신체적으로 열등한 특징을 지니게 되어 다른 베타 계급으로부터 고독감을 느끼며 또한 배양액이 과다투입 되어 감정을 쉽게 느끼는 부적응자이다.

어느 날 야만인 보호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버나드는 자신이 좋아하는 레니나 크라운이라는 베타 계급의 여인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그 곳에서 린다와 인공부화소의 소장의 아들인 존을 만나게 된다. 버나드는 그들을 문명사회로 데려오게 되고 자연부화의 산물인 존은 한순간에 유명인사가 된다.

한편, 문명사회로 오게 된 소장의 아들인 존은 이 문명사회가 욕망만을 갈구하며 백치적인 사회란 것을 알게 되고 분노하며 자신이 사랑한 레니나 크라운 또한 육체적 사랑만을 갈구하고 정신적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알게 되어 절망하게 된다. 소마에 중독되어 비참한 모습으로 사망한 어머니 린다의 모습과 문명사회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존은 외딴 낡은 등대에서 은둔생활을 시작하지만 신세계의 문명인들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이윽고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멋진 신세계에서 묘사되는 신세계는 어찌 보면 정말 말 그대로의 신세계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신세계의 문명인들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으며 이따금씩 발생하는 우울함의 경우 마약인 '소마'의 복용으로 너무나도 쉽게 행복해질 수 있다.

하지만 정말 멋진 신세계가 정말 멋지기만 한 곳인가? 잘 곱씹어 생각해보면 이 신세계에서는 '불행'해 질 자유도 없으며 오직 행복해야만 하고 진정한 사랑,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전체주의적 통제되는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이 있다. 과연 어느 쪽이 나은가? 선택은 우리들 독자의 몫일 것이다.

한여름 밤의 꿈

박준영



처마 밑 마루에서 엄마 무릎 베고
살랑살랑 후덥지근 여름 바람에
송글송글 이마 땀 흘리며 잘 적에
살랑살랑 부쳐주는 부채 바람에
한 여름밤 다 지나가는 줄도 몰랐었네

퇴근길 아빠가 들고 온 수박 한 통에
처마 밑 마루에 온 가족 둘러앉아
수박 한 입 베어 물며 터진
와글와글 이야기꽃에
한여름 밤 다 지나는 줄도 몰랐었네.

호랑이 장가가는 날인가보다
마루에 엉덩이 걸치고 앉아
처마에 맺힌 방울방울
물방울 세어가며
한 여름밤 다 지나가는 줄도 몰랐었네.

그때는 정말 몰랐네
한 여름밤 그날이
너무나 그립네.

작품평 더도 덜도 없는 표현 속에 우리가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오로지 가족의 사랑때문이란 걸 느끼게 해준 시편입니다. 한 여름밤의 원체험. 끝날 것 같지 않은 여름이 벌써 몇 번이나 지나갔는지요.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삶의 시련과 빗대어볼 수 있는 시편이었습니다. 나도 몰래 지나가버려서 놓친 것은 없는지 살피게 됩니다.

한여름 밤에 꿈

조효선

작은 오두막
그곳엔 왠지 니가 있을 것만 같아
뛰어가듯 걸어가다 보면
내 뒤를 따라오는 강아지 두 마리
문 앞에 도착해 숨을 고르고
문을 열면
나를 보려 고개를 도리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같이 느껴지며
천천히 한올한올 시간의 결마저 느껴진다.

특별한 말보다 항상 듣고 들었던 말
"왔어?"이 한마디
이 한마디에 사는 아무말 못하고
세상마저 흐려지기에 끝끝내
나를 바라보며 웃는 미소마저 흐려지네
땀인지 눈물인지 그렇게 꿈을 깬다.



작품평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반겨주는 그 이름이 있다면 성공한 삶이겠지요. 어릴적 여름 오두막에서의 한 철, 그것이 꿈일지라도 충분한 위로와 안식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테마원고
시



한여름 밤에 꿈

김신효

밝은 달이 비추는 바다는 별빛보다 눈이 부시네.
저 달은 사랑인가, 밤마다 나를 엿 보게 하고 말이야
한때는 눈부신 저 달의 속이 비어 보였다네.
날카로운 두 촉으로 위협이나 하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먼 빛 바라보며 괴로워했네.
한 여름 밤 어두워진 부둣가에서
별을 모아 달을 만들어야지 달을 모아 나를 만들어야지
하지만 이제 보니 하나의 달이 골백의 별보다 눈부시구나.
나는 저것을 바라봐야겠다. 달을 사랑해야겠다.

작품평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은 괴롭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반짝이는 별빛 모아 달을 만들고 달빛 모아 나를 만들겠다는 시심, 환한 달빛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려는 것. 그래서 달을 사랑할 수 밖에 없노라는 다짐이 결연하게 다가옵니다.

테마원고
시

너는 꿈이다

박만석

한 여름 밤의 꿈처럼
불현 듯 너를 떠 올리다
소스라치게 책장 넘기듯 너를 넘긴다.
한 사천장쯤 되었을까
너를 넘겼던 장수들
지문이 닳는 줄 알면서도
수없이 넘길 수밖에 없었던
나는 현실이고
너는 꿈이다.

작품평 사람은 하룻밤에 스물여덟가지 꿈을 꾼답니다. 기억나지 않아서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자는 지금 이 삶이 꿈이라 했으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번 생이 가장 빛나는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꽃잎이 지기 전에 피어있는 동안의 삶을 거룩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보는 것이겠지요.



테마원고
시

한여름 밤의 꿈

김영성

떠나오던 날
인사도 없이 떠날까봐
잠도 안자고 하루 종일 옆에서 울고 있던 너
울다 지쳐 잠든 사이
말없이 떠나온 이 아빠를 용서해
이제는 울고 싶어도
남들이 볼까봐 울지도 못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비를 맞으며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울면서
찾아 다녔지
한참을 맞은 빗방울에
멍이 들고 너무 아파서
쓰러져 잠이 들어 버렸어
그렇게 한여름 밤의 꿈은 시작된 거야
너무나 보고 싶어서
꿈에서 나마 보고 싶어서…….



작품평 이별은 세상에서 가장 아픈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별이 아니면 재회라는 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만나기 위해 보내야하는 여름밤의 꿈들. 애타게 나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린 살아야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 거겠지요. 잘 살아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꿈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테마원고
시

한여름 밤의 꿈

김광모

힘들게 걸어온 인생의 길에
잠시 쉬어가려 앉아 있는 그늘이…….

잠시 쉬어가는 그늘이 아닌
내가 입고 있는 부끄러움이라는
그림자를 감추려 들린 그늘이란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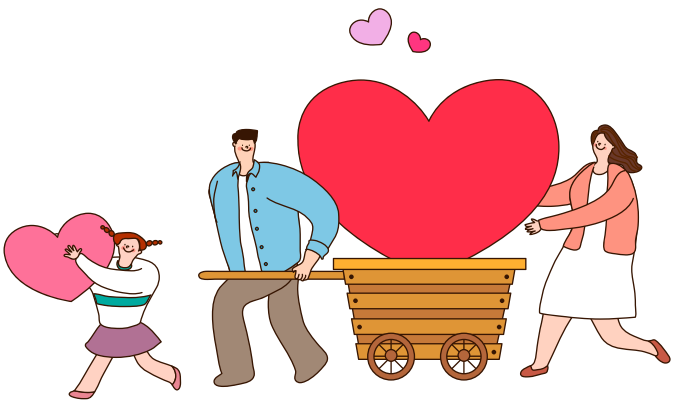
내가 걸어온 인생의
흘러간 시간을 뒤돌아보며

내가 남겨둔 발자취를
바라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늘진 이곳에
내가 지은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가슴속 아련한 그리움이 있는
행복한 추억이라는 그늘을 찾아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봅니다.

희망을 가진 한여름 밤의 꿈처럼…….



작품평 꿈은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가장 큰 꿈입니다. 가족이 주고받는 도란도란 이야기야말로 지치지 않는 행복이 아니겠는지요. 부모 무릎에 잠든 아이들의 모습이야말로 행복한 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지요. 더운 여름을 보내는데 가족만한 비타민도 없는 것 같습니다.

※ "테마 시"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신정민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절망 속, 여름이 가져다 준 꿈

이승훈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사람으로 인해 꿈을 갖는다. 어려서 펜싱 선수로 활동했던 나는 운동을 제외하고는 사회생활이라고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었다. 사람을 쉽게 믿는 내 성격이 결국 문제가 되었다. 2018년의 어느 날, 평소 연락 한 번 없던 6년 선배에게 연락이 왔다. 술이나 한 잔 하자고….

생각 없이 나간 술자리에서 선배는 사업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큰돈이 들지 않으니 환경기계(집진기) 공장을 함께 해보자고 제의를 했다. 아무것도 모르던 나는 막연하게 내 사업을 한다는 허황된 꿈에 부풀어 그 자리에서 수락을 하게 되었고, 다음날부터 필요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도 받고, 일수도 빌리고, 핸드폰을 개통해서 기계를 되파는 일명 핸드폰깡도 하였다. 물론 선배의 지도 아래…. 그렇게 이천만원 정도의 돈을 만들어 선배에게 건냈고, 내

앞으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 통장도 두 구좌 계설하여 건냈다.

실제로 경기도 ○○에 위치한 공장 단지에서 ○○환경기계라는 이름으로 공장을 차렸고, 직원도 3명 채용했다. 너는 아무것도 신경쓸 것 없이 매달 돈만 받아가면 된다는 선배의 말에 나도 이제 어엿한 사장이구나라는 행복함에 빠져있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돈은커녕 이 핑계 저 핑계로 점점 연락이 되는 횟수도 줄어드는 선배가 수상하게 느껴졌고 불안감을 안고 화성공장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본 것은 텅빈 공장의 모습 뿐, 이곳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장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 뒤 이곳 저곳에서 걸려오는 수 많은 전화,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했는데 왜 기계 설치를 오지 않느냐는….

그 때마다 나는 상황을 설명해야 했고, 평생 들을 욕이란 욕은 전부 들은 것 같다. 우선 급히 사업자를 폐기·취소하고, 사업자 통장도 정지를 시켰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다.

세무서에서 세금이라며 이천만원의 세금서가 나오고, 핸드폰비 내라고 용지서 나오고, 대출 일수를 받은 곳에서는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선배와는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 이곳 저곳 수소문 끝에 선배의 친구를 만날 수 있었다. 그 형의 첫 말이 “너도 당했니?”였다. 나 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 정말 하늘이 노랗다는 말을 처음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 어떻게든 일을 해결해보려 경찰서도 가보고 이것 저것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엇도 없었다.

○○세무서에서 전화해 알아보니 두달 남짓 내 앞으로 이뤄진 계약금만 2억정도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이 10%인 이천만원이 나온것이고…. 나는 사실 사업자만 내 명의일 뿐이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였지만,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내 명의의 모든 통장들이 거래 중지가 되고 하루 하루 술에 빠져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을 즈음, 7월의 여름날로 기억된다.

또 다른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소문을 들었다고 형이 도와주고 싶은데 금전적으로 형도 사정이 번하니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그렇게 사설 구급차 일명 앰뷸런스 기사 일을 하게 되었다. 일의 특성상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 그 분들을 보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이렇게 사지 멀쩡한데 노력하면 무엇인들 하지 못할까….” 지금의 시련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잘 헤쳐나갈 수 있을거라는 자신감 같은 것이었다.

지금은 한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법의 심판대에 서 있는 수형자의 신분이 되었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다. 사회로 돌아가면 다시 한 번 구급차 운전을 하여 몸이 편치 않은 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선배에게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포기하였을 때 손을 내밀어준 또 다른 선배가 있었기에 내가 꿈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이 글을 통해서나마 나를 일으켜 세워준 선배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성희형 2018년 7월의 무더웠던 여름날, 아무 의욕도 없이 벼랑 끝에 아슬하게 서 있던 저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했어요. 형이 내밀어준 손을 잡고 저는 다시 한 번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형께서 제게 심어준 여름날의 꿈 제가 반드시 지켜 나갈게요. 항상 응원해 주세요.



작품평 아는 선배의 솔깃한 사업 권유는 이승훈 씨를 절벽의 벼랑으로 끌고 가는 행위였습니다. 선배는 사라지고 승훈 씨는 채권자의 압박에 끔찍한 고통을 겪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글쓴이에게 다른 선배가 나타나 앰뷸런스 기사 일을 소개해주어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을 많이 봤을 텐데 마음의 수양이 되지 않았는지 그만 영어의 몸이 되었습니다. 전화위복이란 말도 있듯이 큰 경험을 했으니 이제는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테마원고
수필

한여름 밤의 꿈



김호근

여름!

듣기만하여도 가슴 설렌다.

저는 경상북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작은 항구에서 태어났으며, 바닷가 출신답게 유독 여름이 그리워집니다. 잠시 눈을 감고서 저의 유소년기의 추억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우리는 남자 12명, 여자 11명이 한 동네에서 같은 해 태어난 개구쟁이 친구들이자 같은 초등학교를 함께 입학, 졸업한 동창생이었습니다. 우리 개구쟁이들은 여름이 채 시작되기 이전부터 삼삼오오 재잘거리면서 학교에서 하교하는 길에 신발과 책가방은 신작로 옆 풀밭에 숨겨둔 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바닷가 백사장으로 뛰어가서 허름한 팬티 한 장씩만 걸친 채 시원한 바닷물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물속에서 '헤엄시합, 물수제비 만들기, 물장구' 등으로 놀다보면 하루해를 서산 너머로 보내게 되고 물놀이에 정신을 판 탓에 숙제 등 공부는 뒷전이었고 노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어 검게 그을린 얼굴로 집에 가면 엄마가 차려주신 따뜻한 보리밥 한 공기를 먹고 나면 금세 졸음이 시작되지만 부모님 성화에 공부를 한답시고 '호롱불' 아래에 자리를 잡게 되면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고개가 숙여지고, 결국은 호롱불에 머리카락을 홀라당 태우고 나면 다음 날 학교에 등교하기 이전에 아버지의 서투신 기술로 깎여진 빡빡머리를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맑고 밝은 모습으로 뛰면서 등교를 하였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방학이 되면 몇몇의 친구들과 의기투합하여서 옆 동네에 있는 과수원 밭의 울타리에 구멍 난 작은 틈사이로 낮은 포복을 하여 들어간 뒤 사과, 수박을 몇 개 서리를 하여 바닷가 물속에 던져두고, 물놀이 등으로 지치면 물속에 던져둔 수박, 사과를 건저 내어서 바닷물에 젖어 짭짤한 맛의 과일을 먹으면서 정겹게 놀면서 하루를 보내곤 하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과수원집 주인아저씨가 우리 집을 다녀간 사실도 모른 체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엄마, 아버지께서는 남의 물건을 '서리' 하였다며 혼을 내곤하였으나, 저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금세 모든 것을 잊은 채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나면 저는 어머니, 아버지 곁에서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지난 어린동심의 시간을 생각하니 제 자신도 모르게 추억에 젖은 행복의 미소가 그려지고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이후부터는 매년 여름 휴가철이 그리워집니다.

저에게 있어서 고향산천은 해외 그 어떤 명소보다도 제 고향의 푸르른 산과 에메랄드빛의 깨끗하고 맑은 바닷가가 더욱 아름답기만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연중행사가 있지요.
매년 초가 시작되면 아내, 아들 그리고 강원도 첩첩산골의 처가댁 식구들의 여름휴가 일정을 모두 저의 휴가 일정에 맞추어서 저의 고향에서 함께 여름휴가를 보낸답니다. 모두가 모이게 되면 30~40여명의 가족들인데 어느 중소기업체의 '야유회'를 방불케 합니다. 진풍경 이지요.

우리는 동네 백사장에 자리를 잡은 후에 대형천막을 친 후 솥을 설치하고 장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닭고기, 삼겹살, 소주, 맥주 등을 준비하여서 모두 대기시켜둔 후 저는 혼자서 또 다른 작업준비를 합니다. 거창한 작업준비가 아니라 수경 1개, 망태기 1개, 칼 1자루만 있으면 되니까요.

저는 작업도구를 챙긴 후에 잠수준비를 한 후에 바닷물 속으로 잠수를 시작합니다. 바닷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는 황홀합니다. 바닷물 속의 자연 생태계는 피로에 젖어있는 저에게 휴식을 안겨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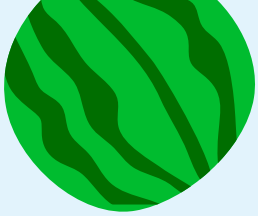
물속에서 잠수하면서 집중수색을 하다보면 자연산 문어, 고동, 주먹만 한 자연산 전복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잠수를 하는 목적은 다름 아닌 자연산수산물을 채취하여서 처가 식구들에게 보양식을 해드리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약 1시간 동안 잠수를 마치게 되면 망태기 속에는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합니다. 여름휴가 때 식구들에게 호언장담 하였던 보양식을 대접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백사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식구들에게 망태기에 든 해산물을 보여주자 모두들 입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의 본격적인 솜씨를 발휘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저는 문어, 고동을 삶아서 식혀둔 채 준비하여둔 대형 솥에다 자연산 전복을 손질하여 준비해둔 닭고기, 쌀을 넣고 전복을 충분하게 넣어서 장작불에 푹 삶아서 허기에 진 가족들에게 전복 삼계탕을 한 그릇씩 덜어서 허기를 달래게 한 뒤에 미리 삶아둔 문어, 고동을 손질하고 자연산전복을 썰어서 회를 만든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을 곁들면서 행복한 정담을 나눈답니다.

오늘 한 끼의 식사만큼은 진시황제의 수라상보다도, 산해진미보다도 멋진 음식이었고 행복하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처가 식구들에게 최고의 인기사위이자 아내에게는 최고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즐거운 만찬이 끝난 후에는 뜨거운 백사장에서 게임도 하며 모래찜질도 하면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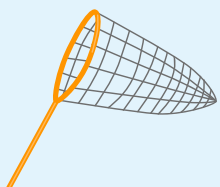
햇볕이 뜨거우면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공놀이도 하면서 가끔씩 밀려오는 작은 파도에 파도타기 하듯이 까~악 소리를 지르면서 한 해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려 보냅니다.

저녁이 되면 열대야를 식히기 위하여 고향집 넓은 마당에 큰 멍석을 깔고서 고요한 동해바다를 감상하면서 멍석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헤어가면서 긴 여름밤의 하루를 보내게 되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잊지 못할 한 여름 밤의 추억으로 남아서 하루의 삶이 힘겨울 때에는 하나씩 들추어내어서 삶의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훗날에 때가되면 저는 아내를 데리고 제가 어릴 적 꿈꾸었던 동심의 세상, 그리고 행복과 꿈이 가득하였던 고향땅으로 돌아가서 고향 마을 어귀에 어릴 적 제가 꿈꾸며 탐구하였던 순진무구한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저의 고향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삶에 지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저 또한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작품평 이 수필은 유소년기 때의 추억담으로, 산골 아이들의 정서가 잘 살아나 있습니다. 그 추억이 주는 힘으로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을 기쁜 맘으로 살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소하여 다시 그곳으로 가서 아이들과 물놀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것, 밥을 먹는 것 이상의 행복은 없습니다.



한여름 밤의 꿈이길…



구재훈

나는 20대에 이곳에 들어와서 지금은 40대가 되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아침에 눈을 뜨면 제발 이 모든 것이 꿈이길 바라며 지내왔지만 못난 생각들을 정리하고 마음을 고쳐먹은 것은 최근의 일이다.

사람은 어느 순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한바탕 꿈을 꾼 것 같다는 말을 하곤 한다. 그것은 누군가에겐 행복했던 어느 한 시절 일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죽음을 앞두고 돌아보는 일생 일수도 있을 것이다.

나에겐 감옥에서의 지난 시간이 그렇다. 마치 12년간의 한바탕 긴 꿈을 꾼 것 같다.

이곳 생활을 처음 시작 할때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눈을 감고 이대로 잠에서 깨지 않게 해달라고 누군가에게 빌곤 했다. 내가 받은 형벌의 무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억울하다고 생각 했었다. 그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현실이 되는 생활이 반복되는 거짓말 같이 무의미한 삶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날 신문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어느 일본 할머니의 시를 마주하고 난 뒤 나는 온 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쓰신 시와 많이 비슷해서 였다. 그분은 바로 나의 할머니시다.

할머니는 내가 구속 되던해 추석에 돌아 가셨다. 문맹이셨던 할머니는 살아계실 때 또래 어르신들이 모여 한글을 배우는 일명 '회관'이라는 곳에 매일 다니셨는데 어느 날 시를 쓰는 것을 배웠다며 삐뚤삐뚤한 글씨로 눌러쓴 시를 내게 보여주셨다. 그때는 할머니께서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손자인 네게 자주 부탁을 하셨는데 철없던 나는 귀찮은 마음에 늘 그 자리를 피하곤 했었다. 그때 할머니께서 내게 보여준 시가 완벽히 기억 나지 않지만 정확히 기억하는 한구절이 있다.

'살아있어서 그래도 좋았네'라는 구절인데 신문에서 본 시바타 도요라는 시민의 시 구절에도 '살아있어 좋았어'라는 말이 있었다.

책이라곤 읽어본 적 없는 할머니께서 시를 표절한 건 아니실테고, 우연으로 비슷한 구절 몇 개가 겹칠 수도 있겠지만 이제와 생각난 내 할머니의 그 문장은 왜이리도 가슴에 각인이 되는 것인가…. 어쩌면 우연을 가장해서 하늘 나라에 계신 할머니께서 내게 그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이유야 어찌 되었든 나는 이 시로 인해 거짓말처럼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시간을 두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시간을 보내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때론 한 권의 책이나 한 줄의 문장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는데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 것이다.

내가 악몽이라 생각했던 지난 시간동안 어쩌면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과 그 가족들 또한 악몽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나는 내가 지은 죄는 생각도 않은채 죄값의 무게만 생각하며 억울해 했고, 현실 도피를 위해 이것이 꿈이길 기도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지르고도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몰랐고, 내 시간이 그리고 인생이 억울하고 아깝다는 생각에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진정한 성찰과 반성이 없었으니 악몽이었을 수 밖에….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 피해자들일텐데….
내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내 지난 과오가 씻겨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라도 남은 시간을 반성과 희망으로 묵묵히 살아가려고 한다.

또한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보고 싶다. 그것이 피해자들에게도, 돌아가신 할머니께도 그리고 나에게도 최선의 도리가 아닐까 감히 생각해 본다.

그리하여 먼 훗날 내 지나온 생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 끔찍한 악몽이었어'가 아닌 '한바탕 아름다운 한 여름밤의 꿈을 꾼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싶다.

끝으로 나를 악몽에서 깨워준 그 시를 다시 한 번 읊어본다.

약해지지마

시바타 도요(1911~)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 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줄 수 있는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마



작품평 20대에 들어와 40대가 되었다니 길고긴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시 한 편이 인생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했다는 대목이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한글을 간신히 깨친 본인의 할머니와 일본의 장수 할머니 시바타 도요의 시에 흡사한 구절이 나온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요. 악몽에서 깨워준 시가 의미심장합니다. "약해지지 마." 맞습니다. 힘을 냅시다. 억지로라도. 악착같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여름 밤의 꿈
- 인생은 연습이 없다

박용우



답답한 공간 안에서 그나마 정을 붙이는 것이 TV 시청이다. 하루의 작업을 끝내고 방에서 휴식을 취하며 무료한 저녁 시간을 보내기에는 TV만큼 좋은 것도 없다. 화면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요즘에는 맛집 탐방이나 가보고 싶은 명승지 소개가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 가족들과 손을 잡고 오순도순 나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부럽기도 하고 옛일이 아련히 떠오르기도 한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휴가를 다녀오거나 레저를 즐기는 일이 드물었다. 나라 전체가 힘든 때이고 먹고 살기가 매우 힘든 보릿고개 시절이라 휴가를 즐긴다는 생각 자체가 사치로 느껴지던 시절이었다. 매주 주말 가족과 함께 도시를 벗어나 가까운 야외로 나들이를 다녀오는 지금의 호사스런 생활과는 판이한 세상이었다. 그나마 관심 있는 사람은 여름 휴가철에 캠프 한 번 다녀

오면 최고였다.

나 역시 어려운 여건으로 나들이를 자주 가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큰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가 되니 놀러 가자고 보채는 일이 많아졌다. 결국 한번은 다녀와야겠기에 여름철이 거의 끝나갈 무렵 큰 맘 먹고 텐트를 빌려 두 아이를 업고 걸려서 춘천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자가용이 없던 시절 아내는 작은 애를 업고 가방을 들고 나는 텐트를 어깨에 메고 식재료 가방을 들고 대성리 유원지로 향했다.

놀이 온 사람이 별로 없었다. 우리 부부가 텐트를 치는 동안 두 아이가 물가에서 돌멩이를 가지고 물수제비 놀이를 하며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아이의 비명 소리가 들려 왔다. 작은 애가 물에 빠져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정신없이 달려가 애를 건져 올리고 보니 이미 물을 많이 먹은 상태였다. 야영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이를 들쳐 안고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곳은 당시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 구리시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갔다. 오가는 차도 별로 없고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라 119에 전화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고 내가 안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 결국 병원에서 물을 토해내고 몇 시간 있다가 나왔지만 큰 맘 먹고 갔던 야영 나들이를 망치고 말았다. 결국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한 여름 밤의 꿈이 되고 말았다.

그 후 몇 번의 가족 캠프를 다녀오긴 했으나 그때의 다급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하다. 텐트 치느라 두 아이들에 대해 무신경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아이가 자라 건강하게 성장했고 우리 집 역시 경제발전과 함께 예전보다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 곳에서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 참으로 미안할 뿐이다.

우리의 인생은 연습이 없다.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이다. 딱 한 번뿐인 인생이다. 비록 이 곳에 있다 해도 이것은 나의 인생이다. 드라마 촬영처럼 NG라고 외치고 다시 처음부터 촬영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지나간 시간이 결코 되돌아 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한 번 가면 결코 되돌릴 수 없다.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

백세 인생이다. 이 곳에서 멈출 수는 없다. 희망을 가져야 한다. 가족에게 그만큼 실망을 안겨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노력해야 한다. 희망은 새롭게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희망을 맞이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저 허송세월을 보내거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 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기다려도 희망의

밝은 빛이 비치지 않는다. 희망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불만 해도 그것 역시 자신의 인생일 뿐이다.

출소 후 사람답게 살고 싶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계획을 세우고 대비해야지 그냥 기다려선 안 된다. 계획이 없다면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소소한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 다시 태어나도 처음의 삶처럼 살겠다는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내가 인생을 다시 한 번 살게 된다면 나의 제2의 인생도 제1의 인생과 같을 것이다.'라고 했다. 비록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공부는 별로 잘하지 못한 그였는데 육사를 나와 군 경험과 정치에 입문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영국을 구한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다. 자신의 인생사가 얼마나 만족했으면 다시 태어나도 같은 삶은 살겠다고 하겠는가. 참 부럽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 대학을 나와 직장을 다니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와 오붓하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다. 하지만 이곳에 오고 보니 그때 그 시절의 삶이 행복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봉급 받아오면 가족과 함께 외식도 하고 휴일에는 자녀들과 가까운 유원지라도 나들이 가서 하루라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돈 핑계대고 시간 핑계대면서 행복의 삶을 누리지 못했다. 아이들이 커가고 하나하나 살림 장만하는 쏠쏠한 재미를 행복이라 여기지 못했는지 후회스럽기만 하다.

만족한 삶은 아니더라도 후회가 없는 삶이어야 하는데 이젠 구린내 나는 삶이 되어버렸다. 온통 오물을 뒤집어쓰고 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고통이고 고난이다. 상상도 못한 구렁텅이에 들어와 자신의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될 줄 전혀 예상도 못하고 하루하루가 힘겨운 삶이 되고 있다. 하늘을 봐도 맑은 날이 없다. 마치 미세먼지 낀 하늘처럼 그저 뿌옇고 시커먼 세상이며 금방이라도 폭풍우 쏟아질 것만 같은 우울한 세상의 연속이다. 흐린 날이 있으면 맑은 날도 있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맑은 날이 도래한다는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견디는데 어찌 이리도 검은 구름이 늦게 걷힌단 말인가.

내 인생은 오롯이 나의 것이다. 나의 부로라고 해도 내 인생을 대신 살 수가 없고 둘도 없는 죽마고우라 해도 내 인생에 관여할 수가 없다. 겨우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거나 격려를 해주는 게 전부이고 내 인생 항로를 결코 남에게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내 운명이고 현실이기에 되돌릴 수는 없다. 내 앞에 펼쳐진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할 뿐이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고 잃는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으며 닫힌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다. 성공과 실패는 분명 짝을 지어 다닌다.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추락할 수 있다. 반면 실패라고 느끼는 순간 다시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다.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갔으면 내려올 때도 있다. 지금의 현실은 분명 내 인생에 실패의 순간이다. 그렇다고 종착역은 아니지 않는가. 백세 인생이라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이 분명하다. 힘든 환경이지만 좌절하고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답답하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해도 어딘가 돌파구는 존재할 것이다. 겨울이 없다면 봄이 그리 반갑지 않은 것처럼 추운 겨울이 있기에 화창한 봄이 기다려지고 고통의 역경을 견디고 있기에 희망의 빛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있는 것이고 당신이 평생 성실히 살아왔기에 우리 가족이 이만큼 살 수 있는 거라고 격려하는 아내의 말 한마디에 오늘도 힘을 내본다.

어린 두 자식에게 남부럽지 않게 해주진 못했어도 대학 나와 직장 갖고 결혼까지 하여 자신의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했기에 자식들이 이 먼 곳까지 나들이를 해주는 것만이라도 작은 행복이라고 생각하니 그 옛날의 추억이 아련하기만 하다.



작품평 물놀이를 갔다가 작은아이를 잃을 뻔했던 아찔한 순간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수필에 가슴에 새길 말이 많이 나옵니다. “출소 후 사람답게 살고 싶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은 그곳에 계신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내 인생은 오롯이 나의 것’임을 알고 있으므로 출소 이후 제2의 인생을 보람 있게 가꿔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지만 두 번 이상은 과오가 되지요. 멋지게 사실 겁니다.

한 여름밤의 꿈에서 깨어나



박정수

꿈에서 또 당신을 보았어요. 꿈에서 만난 당신은 언제나 나를 꾸짖는 사람이네요. 나를 꿰뚫어 보는듯한 눈빛에는 질책이 묻어있죠. 꿈에서 당신이 내게 하는 말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송곳 같아요. 어쩜 그리 아픈 곳만 찌르는지 가끔은 그게 너무 서럽기도 해요. 그래도 내가 당신에게 다가서려 하면 당신은 자리를 피해버리지요. 따져 묻기라도 할라치면 그런 내가 피곤하다는 듯 짜증을 내는 당신 모습이 또 한 번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게 원망스러우면서도 나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가만히 받아들일 수밖에요.

그러다 번쩍, 눈을 뜨고 나면 간밤에 나를 괴롭히던 마음들이 모두 꿈이었음을 깨달아요. 그러면 또 나는 허탈해지고 말아요. 당신과 나 사이에 오간 그 복잡한 감정들이 전부 내가 만든 허상이었다니요. 내 마음은 가짜가 아닌데, 가짜가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사실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되어온 나의 일상이었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도, 연인도 아니었는데 내 마음 깊이 박혀있어요. 이제와 이런 편지를 쓰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오늘따라 당신이 내 편에 서서 힘을 보태 주던 그때가 몹시 그리워 펜을 들어요.

우린 아주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내왔잖아요. 난 아직도 당신을 처음 알게 된 그 날을, 어리고 순수했던 그 시절을 기억해요. 나와 함께 어린 시절과 어렸던 생각을 공유하며 우린 함께 성장해 왔어요.

이렇게 나의 모든 것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본 몇 안되는 사람 중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나에게 참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정말 소중했어요.

그때의 나는 어려서 그런 마음을 다 보여주지 못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괜히 투덜거리기도 하고, 쓸데없이 딴소리만 늘어놓다 흐지부지 되기도 했지요. 서툰 내 방식이 당신을 서운하게 할 때가 많았다는 걸 알아요. 어쩌다 내가 당신을 반기는 기색이라도 내비치면 당신은 몹시 감동받고 좋아해 줬으니까요. 아마 당신은 내가 그저 심심할 때만 당신을 찾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을 찾은 순간들은 모두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서였어요. 아무나가 아니라 꼭 당신이어야 했다고요.

당신은 단 한 번도 이런 내 태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네요. 꿈에서처럼 날을 세우지 않았어요. 다만, 실망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괜찮다, 괜찮다며 번번이 나를 받아주었죠. 그게 얼마나 많은 배려가 필요한 일이었던지를 나는 너무 늦게서야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더 괴로운가 봐요. 당신에 대해 떠올리는 모든 것들은 한없이 포근하고 부드럽기만 한데, 그때의 나는 왜 포근한 줄 몰랐을까요. 게다가 직접 말한 적은 없어도 당신을 아끼는 내 마음 정도는 알 거라 생각했어요. 그 마음 몰라 줄때면 내가 되레 서운해진 적마저 있네요. 나 참 이기적이죠? 삐죽삐죽 못난 내 마음이 당신을 아프게 했을 거예요.

내가 매번 당신에게 거리를 두고, 더 가까워지기라도 할까 내 마음 드러내기를 겁냈던 것은 그래서였어요. 나를 그저 예쁘다, 예쁘다 아껴만 주던 당신이 내 일그러진 마음을 알고는 실망할까봐 무서웠어요. 당신이 멀어질까봐 내가 먼저 멀어져버리는 내 방식에, 당신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당신과 만나기로 한 어느 날 갑자기 숨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뜬금없게도 당신 보는 일이 자신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왜 그랬는지 나도 여태 알지 못해요. 황당했을 거예요. 둘러댈 말조차 없어 당신에게서 오는 연락을 받지도 못했으니까요. 나를 기다리다 돌아가야 했던 당신은 조금 투덜거릴 뿐이었어요. 차라리 화를 내지 그랬어요. 왜 당신은 내게 화내지 않았어요? 난 그 날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미안해요. 당신에겐 평생 미안할 것 같아요.

사춘기 시절의 나는 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때 당신이 건냈던 밝은 격려들이 있어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올 수가 있었어요. 당신의 말들이 그렇게 귀한 건 줄도 모른 채 살다가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네요. 그 시기의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었고, 내가 손을 내밀

때마다 내 손을 잡아준 당신. 지금 내가 살아남아 있는 건 당신 덕이에요. 고마워요.

하지만 그 시절을 지나 나아질 찰나에 나는 이곳에 왔어요. 이런 나를 보고 당신은 뭐라고 할까. 소식을 전 할 때 마음이 무척 어려웠어요. 당신의 좋은 응원들을 받고서도 이렇게 되었으니, 날 떠나겠다 한대도 난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소식을 들은 당신이 내게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앞으로도 잊지 못 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묻는 것도 아니었고, 왜 그랬느냐고 혼내지도 않았고, 번하고 형식적인 위로도 아니었어요.

"너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영화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듣고 그만 웃어버렸어요. 언제나 나를 결국 웃게 만드는 사람. 고맙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언제나 내게 힘이 됐고, 위로가 됐어요. 당신이 오랫동안 내 곁에 내 편으로 있어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오기로 약속한 어느 날이었어요. 구치소에 있는 나를 만나러 온 당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었어요. 오는 길에 갑자기 몸이 안좋아져서 몹시 힘들었다고 말하며 맥없이 웃었잖아요. 오래 전 당신과의 약속을 깨트린 내 모습이 생각나 자꾸만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서 이 날의 기억을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날이 당신을 만난 마지막 날이 되었으니까요.

그 이후로도 제법 오래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나와 당신의 시간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그 차이가 사람의 인연을 쉬이 끊어놓기도 한다는 것을 미처 몰랐어요. 엇갈리고 엇갈리다 우리의 인연은 끝이 났네요. 그게 마지막일 줄 알았다면 한 번만이라도 내 진심을 모두 눌러 담아 미안했다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고마웠다고 인사라도 전했을 텐데. 마지막까지도 나를 대하는 당신 모습이 한결같기만 해서 이별 같은 게 있을 줄도 몰랐어요. 당신 마지막 모습을 못 본 지가 벌써 8년 전이에요. 여전히 난 너무 서투르고 부족해서 전하지 못한 내 마음을 꼭 쥔 채 살고 있어요.

지난 밤 꿈에 당신은 또다시 날 떠났었어요. 그걸 알자마자 당신 놓칠 새라 달려가 당신을 찾아냈죠. 어김없이 차갑고 날카로운 투로 나 할거 하지 왜 왔느냐고 짜증을 내더군요. 내가 당신을 따라오느라 허비한 시간과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읊으면서 비아냥거리는 당신 모습에 그만 화가 치밀어 소리를 빽 질러버렸어요. "그 일은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고,



그것도 아니라면 내년에 해도 되지만, 당신 배웅하는 일은 지금이 아니면 안되는 데 왜 자꾸 날 더러 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요. 이게 내 진심이었어요. 당신은 지금이 아니면 안되는 인연이었고, 자질구레한 일등에 비할 바 없이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화가 나 내지른 말에 당신이 그제서야 웃었어요. 꿈에서 처음으로 당신이 날 보고 웃었네요.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이런 마음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해 오랫동안 당신 기다리게 만들어 참 미안합니다.

꿈에서 깨고 나니 그야말로 한 여름 밤의 꿈. 당신은 이미 떠나고 없어요. 오늘따라 당신이 그립습니다.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지금 당신에겐 당신의 삶이 있고, 그 삶을 잘 살아내고 있을 테니 더 이상 끼어들어선 안 될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사회로 돌아가면 함께 나누기로 한 작은 일상들. 그 약속 지킬 기회 한번만 내게 주어지길 바란다면 그건 욕심일까요. 그 약속들이 정말 존재하긴 했었는지 이제는 전부 꿈결 같아 외롭고, 그립습니다.

부디 지난 밤 꿈만큼은 당신이 그리워 내가 당신 꿈 속에 찾아간 일이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답해 내지른 그 말들이 당신에게 가 닿았길 바라고, 꿈에서 깨어난 당신은 당신 곁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걸 한 번쯤 기억해준다면 나는 그 걸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리석고 수줍어 입 밖으로 내진 못했어도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말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게 당신이 소중하지 않았던 건 아니라는 걸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끝내 이 글은 전해지지 못할 편지로 남겠지만, 이제야 인사를 전해요. 나의 어두웠던 시절은 당신이 있어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당신은 참 따뜻하고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작품평 헤어진 연인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전개되는데 이 글을 장점은 진심이 우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8년 전에 헤어진 이라면 기억에서도 희미해졌을 텐데, 정수 님은 소꿉친구였던 한 사람을 깊은 애정과 연민으로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간은 추억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떠나간 사람을 고마워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세파도 만경창파가 아니라 잔물결이 될 것입니다.



한여름 밤의 꿈



김영현

20살에 동네 횟집에서 서빙을 하면서 회뜨는 기술을 배웠는데, 어느덧 20년이나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딱히 꿈이 있는 것은 아니였지만 그렇다고 횟집 실장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먹고 살려고 일 하다보니 20년 동안 한 우물만 파게 되었던 겁니다.

횟집 특성상 아침 9시 출근에 밤 9~10시 퇴근은 당연한 것이였습니다. 남들 다 쉬는 주말은 일주일 중에 제일 바쁜 날이라 당연히 쉬면 안되는 걸로 생각하며 일 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늦게까지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성실하다며 와이프가 결혼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늦게 끝나는 만큼 가정엔 소홀할 수 밖에 없었고,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가족여행 한 번 제대로 다녀온 기억이 없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이제야 듭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뉴스에 매일 날씨 이야기 밖에 안 나오던 2018년 8월에 구속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탓이 아닌 제 잘못 이였으므로 달게 벌 받을 생각을 했습니다.

주위에서 말리던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했는데 저는 생각보다 형량을 잘 받았습니다. 잘 받은 형량이 7년…. 더군다나 전 초범인데, 초범이 7년을 잘 받았다고 말하는게 웃길 것입니다. 제가 지은 죄를 아니까 잘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구속되고 너무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주위엔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도 없고, 교도소란 곳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곳 이었기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생각 밖에 안 들었는데 저의 이런 불안정한 마을을 알고 절 CCTV가 있는 독방에서 생활하게 하였습니다.

자살이란걸 절대 할 수 없게 절 감시해준 직원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때 조금만이라도 빈 틈이 보였다면 제가 이 글을 쓰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 자릴 빌어 ○○교도소 직원분들게 진심으로 고맙단 말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제 마음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딸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재판 받는 중에도 보고 싶었지만 수용복 입은 제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기가 너무 창피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사춘기인 딸이 충격 받을까봐 걱정도 되었고요….

구속된지 정확히 1년 되는 날 와이프하고 딸이 접견을 왔습니다. 1년만에 본 딸이 안 본 사이에 훌쩍 컸다는게 느껴졌습니다. 접견시간 20분이 2분 밖에 안 되는 것처럼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딸 앞에서 너무나 약한 모습 보인거 같아서 창피합니다. 지금은 스마트 접견도 하고, 직접 손 편지도 써서 보내주는 딸 덕분에 더욱 힘을 내며 지내고 있습니다.



딸이 티벳의 유명한 속담이라며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요'라는 말을 편지에 적어 보내줬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밖에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 없고, 해결할 수도 없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빠 건강이나 잘 챙기고 하루라도 빨리 나올 생각만 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항상 어리게만 보였는데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며, 마음 아파하고, 절 위로해 주는 모습을 보니 언제 이렇게 컸나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는 가족이 있기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없으므로 해서 가족들이 힘은 들겠지만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간이 많이 아깝기에 저 나름대로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자 5급 시험 보려고 공부하고 있고, 조만간에 직훈도 신청해서 다녀올 생각입니다.

직훈 가서 무엇을 배울지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무엇을 배우든지 열심히 배워보려 합니다. 사람 일 알 수 없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7년이란 세월을 이 곳에서 사는데 정말 까마득 하지만 지은 죄가 있기에 달게 벌 받을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말한 이 또한 지나가리란 말이 떠오르는 요즘인데 참고 견디다 보면 분명히 이 시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재소자 여러분들도 여기에 있는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게 노력하시고 희망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한 여름 밤의 꿈이길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작품평 초범인데 7년 형을 받았다면 큰 잘못을 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잘못입니다. 형기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살 방지 차원에서 독방에서 생활하기도 했다고요. 한자 5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직업훈련도 신청할 거라고 했습니다. 체념하고 자포자기하면 그곳에서의 삶은 허송세월이 될 겁니다. 동료들에게 했던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게 노력하시고 희망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란 말은 명언입니다. 그곳에서의 7년은 가장 많은 공부를 한 7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한여름 밤의 꿈



황태용

무더운 여름하면 떠오르는 것은 에어컨 바람, 바다와 계곡 또는 아이스크림과 수박, 더위를 피하거나 이겨낼 수 있는 시원한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평범하기 그지없고 당연하게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들은 이곳에서 욕심이 되고 사치가 된다. 그저 시원한 물이라도 원하는 만큼 마실 수만 있다면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을 정도로 자존감마저 낮아진다. 이곳에서도 요즘은 자비구매를 통해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도 있지만 뜨거운 태양에 달궈진 밤의 온도는 선풍기와 부채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흘러내리는 땀을 연신 닦으며 잠들지 못했던 2017년인가 2018년의 한 여름 밤이 생각난다.

2017년, 나는 1심에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무지함으로 완전무장한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해가 풀리길 기다렸고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리라 믿었다.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예상과는 달리 25년이라는 어마한 징역을 받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감정을 느끼기 전에 눈물만 쏟아져 내렸다.

그렇게 며칠째 초점 잃은 눈동자로 멍하니 허공만 보다 갑자기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며 정신을 차리고 항소를 시작했다.

직원 분들에게 조용한 곳을 부탁드렸지만 나의 심리상태를 걱정하시고 적당한 방으로 지정을 해 주셨다. 달리 방법이 없었던 나로선 최선이라 생각하고 쇠창살에 방충망으로 덧대어진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4월초, 아직은 쌀쌀한 날씨덕분에 쇠창살에 덧대어진 방충망을 신경을 쓸 리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날씨는 점점 더워졌다. 한겨울 살이 찢어질 듯 차가웠던 수돗물은 보일러가 켜진 것 마냥 미지근해서 샤워를 아무리해도 그때뿐이며 선풍기 바람도 시원하지 못했다.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와야 했지만 아뿔사! 바람은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했고 방충망의 촘촘함만 실감케 했다.

하여, 밤이며 온갖 생각으로 창틀에 붙어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바람의 소중함을 만끽했다. 그리고 항소가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길 소망했다.

하지만 나의 바람과는 달리 결과는 좋지 못했고 상고로 이어졌지만 역시나 마찬가지였다. 지옥 같은 더위도 이겨내며 아등바등 거렸지만 나의 무력함만을 한 번 더 증명한 꼴이었다. 이후 삶에 대한 의미가 없어진 나는 눈뜬 송장과도 같았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로 공부라는 빛을 보게 되면서 살아갈 명분이 생겼지만 어떤 방법으로 기나긴 세월을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이지 못했다. 무작정 공부라는 것을 시작한지 몇 달, 시간은 흘러 2018년 여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최악의 여름을 갱신하기에 이른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먹어 본적 없는 더위도 먹었으며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 탓에 잠들 수도 없었다.

그 때마다 연신 부채질을 하며 오만가지 생각에 빠져들었고 문득 '25년 뒤' 나를 생각하게 된다.

'만약 지금처럼 살아있으니까 살아간다면 시간이 흐른 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었다. 혹여, 징역 25년을 받았을 때와 다르지 않다는 상상을 하게 되니 소름이 돋고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다.

생각은 더욱 깊어져 훗날 다시 사회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상상하며 가늠해보게 되었다. 여전히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안은 채 조금씩이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노력한다. 가끔 더디다고 느껴질 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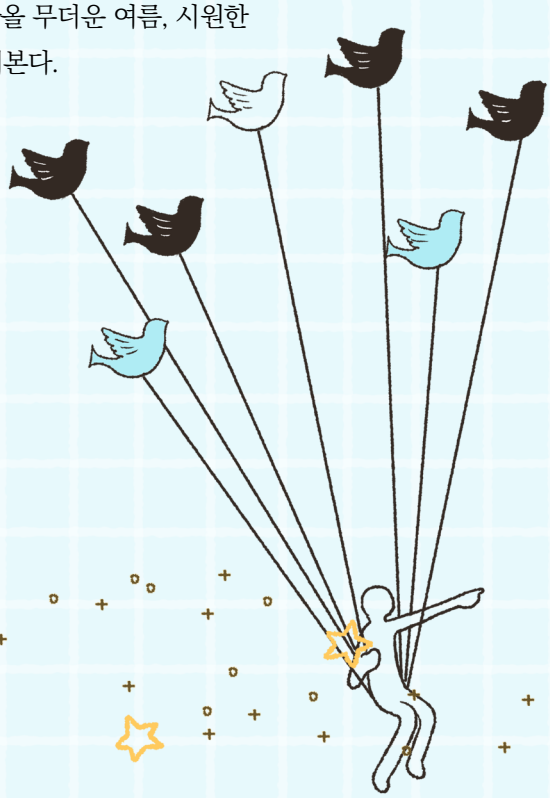
나는 지금도 생각한다. 과연 내가 25년보다 짧은 징역을 받았어도 이런 생각을 했을까! 사람은 처해진 환경과 상황에 얼마만큼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 말이다.

한여름의 밤, 한 번은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하게 꿈꿨고 또 한 번은 머나먼 미래를 꿈꾸며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

이제는 저 밖에서 누리고 살아왔던 기억을 버리고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부지런하고도 꾸준히 할 것이다.

지금의 생활을 수용하고 살아간다면 다시금 찾아올 무더운 여름, 시원한 물 한잔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가짐도 가져본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어쩔 수 없고 쓸데없는 일들을 버려두며 지금 나는 집중하는 자세로써 앞으로 살아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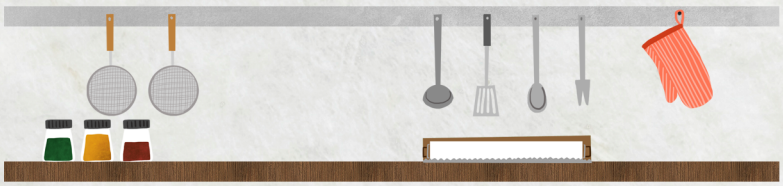


작품평 25년형을 받았으니 참으로 긴 세월을 사회를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25년 뒤의 자신을 생각하면 암담해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태용 님께서는 25년 뒤의 모습이 지금의 나와 다를 바 없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소름이 돋고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대 말마따나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지금 매사에 집중하는 자세로 살아가 보겠다고요. 그래요 인격 수양과 지식 습득에 애를 쓰면 그곳이 바로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테마원고
수필

한여름 밤의 꿈

최해성



10월의 어느 쌀쌀했던 가을의 막바지

새벽같이 눈이 뜨여져 잠이 한참 덜 깬 듯 두 눈을 부비며 뺑기통 안에 쭈그리고 앉아서 얼음 같은 찬물 한바가지 끼얹고 나면 이내 눈이 번쩍 뜨이는 정신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여 때 이른 조식 후에 방 사람들 옹기종기 둘러앉아 마시는 율피(율무차+밀크커피)한 잔에 밤새 감기를 앓았던 몸은 사르르 녹아 내립니다.

하루 중에 제일 분주한 이른 아침. 사동 도우미의 우렁찬 "점검"을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각 잡힌 자세와 번호를 외치고 오래전 군생활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점검시간이 지나고 앞 창에 서서 시원한 공기 맡으며 기지개를 펴는 순간, 파랗고 청초한 맑은 하늘아래 사동 복도 창문 너머 저 멀리 보이는 ○○산 정상 위에 하얀색 매표소가 손을 뻗으면 잡힐 듯 아롱아롱 어린시절 부모님 손잡고 허니문카를 타며 제일 높은 곳까지 한 바퀴 돌며 올라갔을 때 그 시절 인천 앞바다와 몇 채 없던 몇 동의 고층 빌딩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른 냥 한껏 미래를 꿈꿨습니다.

조용했던 수용동 복도가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너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하늘색 관모포 두장과 리빙박스를 들고 부스스한 머리와 덥수룩한 턱 수염의 신입이 쭈뼛쭈뼛 대며 거실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하며 우렁찬 목소리로 자기 소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서없는 말 끝에 방사람들은 박수로 대신 환영해주며 따뜻하게 신입을 맞이합니다.

바로 윗 고참은 그의 관복 상의를 넘겨받고 딱풀로 붙인 수번 하나를 붙이노라면 새삼스레 자기의 거실표와 수번을 만지작거리며 이곳에 있는 것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내쉬는 한숨에 옆자리 고참 동생은 그의 어깨를 다독여줍니다.

잠시 후 큰 소리로 "배식"을 외치는 사동 도우미의 복창을 뒤로하며 일사분란한 동작으로 방사람들은 자기자리에 미리 약속이나 한 듯 일사분란하게 앉습니다.

각자 정위치 후 두 개의 밥상위에는 하얗고 고운 두 번 접은 휴지와 초록색의 수저와 젓가락이 색깔을 맞추며 조화를 이루고 모락모락 김이나는 복도 정문 끝 배식 수레에는 잘 익은 총각 김치와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식욕을 자극하며 열 여덟 개의 눈동자들은 배식구로 일제히 향합니다.

배도 부르고 발을 뻗으니 이내 몰려든 식곤증에 벽에 등을 기댄 채 단잠에 잠시나마 빠져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갑니다.

한 여름 밤, 별이 잘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 미래의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사랑하는 사람과 설레이듯 미래의 꿈의 설계도를 그려보았습니다.





꿈 같은 날들만 가득하고 꽃길만 거니는 꿈을 꿔보지만 꿀맛같은 잠을 깨우는 방송소리에 이내 깜쪽같이 사려져버린 달콤했던 한 여름 밤의 꿈을 깨며 언젠가 다가올 그날을 위해서 수백 번의 설거지와 수 백번의 찬물 샤워를 하며 아직은 머나먼 훗날임을 되내이며 고단했던 하루. 잠자리 이불 펴고 자리에 누워 사동 복도 창문 밖으로 희뿌옇게 가려진 별빛을 바라보며 잠시동안 이 시간에도 잠못 이루시고 아들 생각에 연신 흐르는 눈물을 훔치시는 울 엄마 무릎 위로 고령의 가슴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게 하루 또 하루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석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재판장님과 처음 얼굴을 대면 하던 날 따로 시간을 주시어 마지막으로 제가 피해자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최후 진술 시간. 종이에 적어가지도, 손 바닥에 적지도 않은 짧지 않은 글들을 쏟아내며 마음 속 깊은 곳부터 뜨겁게 흘러내리는 남자의 눈물은 꼬작꼬작 때가 잔뜩 낀 관복의 소매 끝을 하염없이 적시며 무거운 재판정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결과가 나오고 국방색 똥복에서 파랑색 관복으로 새단장을 하며 왼쪽 가슴 수번에는 숫자 2라는 급수표시와 함께 기결 이감 대기방으로 옮기게 되며 또 한번의 보따리를 쌓야만 했습니다.

이감 대기방 사람들은 모두가 힘든 앞으로의 수용생활에 언제 또 떠나갈지 모르는 불안함에 새벽까지 잠 못 이루며 다음날이면 꾸벅꾸벅 조는 모습들이 마치 양계장에 닭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 같았습니다. 그러다 스트레스가 폭발할 때면 아웅다웅 지지고 볶고 푸닥거리며 그렇게 정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평소와 다름없는 평일 아침 점검 후, 야간 근무자가 수용거실로 직접 오셔서 앞 창을 여시며 몇 몇 이름을 호명하고 이감을 준비하라는 말씀에 어떤 것부터 해야할지 손과 발이 오그라 들었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위해 보따리를 나 대신 챙겨주는 방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하게만 느껴지는 그 순간, 그동안 제일 얄밉고 미웠던 동료는 고개돌려 소리없는 울음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사동 복도에서 아쉬운 이별을 뒤로하고 1층에서 대기하는 법무부 호송버스 위로 9명의 사람들은 오랜만에 타보는 버스 좌석이 어색한 듯 우물쭈물하다가 친절한 직원의 안내로 자리에 착석 후 안전벨트가 채워지고 ○○을 벗어난 버스는 고속도로를 들어서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바깥세상의 신비스러운 모습과 파랑색 하늘에 매료되어 탁트인 숨을 그제서야 천천히 음미하며 내쉽니다.

그렇게 다섯시간 삼십분 정도를 달렸던 버스는 마침내 ○○에 도착하였고, 아담한 수용동 앞에 내린 우리들은 오랜만에 밟아보는 땅 바닥이 그저 신기하고 신나기만 하였습니다. 간단한 절차를 마치고 각자의 거실로 나눠진 후 우리는 피곤하고 녹초가 된 몸을 잠시 방바닥에 뉘며 다섯시간 넘게 옴짝달짝 못하며 굳어있던 근육을 기지개로 보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부자리를 펴고 세명의 동료들은 아마도 똑같은 꿈을 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기별 저 너머의 ○○의 하늘 밑 어딘가에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1년이라는 형을 받았던 나는 앞으로의 남은 수용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보람되고 뜻깊게 보내기 위해 사회에서의 직업이었던 대학병원 응급구조사 경험을 토대로 의료사동 도우미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작업신청이 승인되어 6개월간 의료사동에서 사동 도우미로 봉사를 하며 침상생활에서 대소변을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환자분부터 심한 중증 파킨슨 환자와 뇌경색 환자 등을 도와드리며 나름대로 뿌듯하고 뜻깊었던 6개월의 시간은 흘렀고, 가산점을 위해서 마지막 수형생활을 ○○직훈 훈련생으로 두달간 단기조리과정을 익히며 지금은 거의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한식, 중식, 양식 과정을 속성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칼질로 재료를 썰어 준비하는 과정과 다시 시작된 8월의 뜨거운 여름에 가스불은 땀을 비오듯 하며 체중을 5kg이나 뺄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두달 동안 아무 사고없이 무사히 과정을 잘 마치고 두달이라는 가슴벅찬 가석방에, 1년전 처음 구치소에 들어가 꿈을 꿨던 기대감이 그 시간을 너무 그리워했던 나의 "한 여름밤의 꿈"을 꾸게 해주었던 소박한 소망이었다는 것을….



작품평 수용자가 쓴 수필은 대다수 갇힌 자의 답답함이 그래도 나타나거나 우울증에 사로잡힌 자의 푸념으로 이우러진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기는 하지만 생활태도를 그곳에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의 장점은 밝고 희망적인 생각을 늘 하는 분이 썼다는 데 있습니다. 알을 깨는 아픔이 있어야 재탄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해성 님은 지금 큰 인생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여름 밤의 꿈



홍석규

지난날, 꿈꾸었던 대찬 목표였지만 끝내 못다 이룬, 그것을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추억하듯 회상할 때 우리는 「한 여름 밤의 꿈」하고 종종 말하곤 한다. 살아감에 있어 겪을 수밖에 없는 실패 중의 한 조각 일뿐이지만 그것에 낭만이라는 겉옷을 입혀주는, 그래서 추억으로 걸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참으로 마술 같은 언어이다.

나의 지난날은 온통 「한 여름 밤의 꿈」 그 자체였다. 시작은 특별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싫다는 나에게 어머니께선 다그침 대신에 피아노를 권하셨다. 그때가 2002년 만 3살 때다.

나만큼 일찍 피아노를 시작한 아이는 당시 내가 다니고 있던 학원에서는 거의 드물었고 나는 어딜 가든지 영재취급을 받으면서 꽤나 승승장구했다. 나가는 콩쿠르마다 트로피를 빼놓는 법이 없었고 학원 앞 현수막에는 내 이름이 1년 내내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이런저런 곳에서 피아노로 많이 활동했다.

그렇게 10년을 칭찬받고, 인정받는 데에만 매달렸다.

뚜렷한 목표 없이 단지 그런 이유로만 기계처럼 피아노에 묶여 살았던 나에게 '또래집단'이라는 공동체가 생겼다. 그들은 나를 이해했고 공감했으며 나대신 화를 내주었고 같이 울어도 주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마음의 안정이 커져만 갔다.

집, 학교, 학원, 집의 사이클에 갇혀 있던 내게 변화가 생긴 것이다.

결국,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 피아노를 그만두었다.

학원 밖의 삶은 일탈 그 자체였다. 주말만 되면 항상 술에 취하지 않는 날은 없었고, 악보를 넘기면서 건반 위를 뛰놀던 손가락은 담배 냄새가 빠질 새가 없을 정도로 담배와 라이터를 번갈아 쥐는 용도로 변해버렸다.

나는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수도 없이 되뇌었지만 이미 억누를 수 없을 만큼 잘못된 욕구들이 내 키를 흠씬 뛰어넘어 자라고 있었다. 나 자신보다 집단안의 '홍석규'를 멋지고 착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살았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다는 지난날의 귀여웠던 건반 앞의 홍석규의 바람과는 사뭇 다른, 그런 허황된 하루 하루에 빠져 나는 많은 것을 잃어갔다.

가족들의 신뢰, 집단 이외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그 기간 투병중이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결국 집단 모든 친구들과의 인간관계 또한 전부 단절되었다.

지금 되돌아보면 우습기 짝이 없는 시간들이었다. 이리 될 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테지만 그런 목표를 갖고 살지도 않았을 테지만.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한 여름 밤의 밤' 인생, 아니 실패투성이 인생이었다.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지고 간신히 불구속 기소되어 나왔음에도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던 나는 결국 법정구속 되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내편이 아닌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의 눈물을 접견실 창상 너머에서 보면서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출소를 앞두고 생각이 깊어진다.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그저 지금의 이 다짐 또한 한낱 꿈으로 회상하는 미래를 맞지 않도록 성실히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자는 다짐을 매일 해본다. 훗날, 성공하여 별이 되신 사랑하는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오늘도, 내일도 다짐했고 다짐할 것이다.

작품평 너무 어릴 때부터 피아노 연주자로 나선 게 재앙의 시초였나 봅니다. 트로피가 생길 때마다 마음의 공허를 쌓여갔고, 급기야 일탈의 삶에서 위안을 얻게 되었군요. 타락한 삶도 나름의 즐거움은 있었겠지만 그것의 끝은 허망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저세상에 가신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세상의 비극은 우리가 하루를 살면 그 하루가 죽는다는 것을 모른 데서 온 것일 테지요.

"테마 수필"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승하 교수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수 기

손 씻겠습니다



이정환

나는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범죄의 구렁텅이에서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삶의 바깥에서 서성이고 맴돌았으며 내 마음의 어둠속에 파묻혀 있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너무 오랫동안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잔뜩 웅크린 채 살아왔던 내 그늘진 외로움이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먼 길을 돌아 돌아간 집에는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나의 20년과, 어머니의 20년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그 헤아리기 힘든 슬픔을 알기에 조용히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어머니(시각장애 4급)는 내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내가 죄송하다고 해도 어머니는 오히려 본인이 부족해서 아들에게 험한 일이 생겼다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오신 것이 나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20년의 세월은 또 한 분을 아프고 외롭게 했습니다. 바로 (친)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의 병실문 앞에서 머뭇거리다 들어갔습니다. 할머니(1921년생)는 저를 조용히 안으시며 "괜찮다, 괜찮어. 우리장손, 내 새끼. 살아 있는 거 봤으니 됐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가슴에 커다란 아픔으로 그 전에 흘린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서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과 서로 말을 나누고 온기를 나누며 사는 것, 이 어렵지 않은 일들을 나는 못했습니다. 나에게 할머니와 어머니는 괜히 눈물이 맺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어주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2020년 봄을 나는 언제까지나 마음에 간직할 것입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를 멀리멀리 두고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현실과 내 마음의 눈물겨운 약속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또, 구속. 눈물이 나고 가슴이 무너지고 무너지고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되나 싶고, 나는 정말 안 되는 걸까? 어찌 이런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을까? 구속 후 바보 같고 미련한 이 사람은 마음을 닫고 숨었습니다. 숨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 숨은 곳(유치장, 구치소)에서 스스로 그렇게 밉고 못나 보일 수가 없어서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의 내면에 도사린 나쁜 마음이, 나쁜 생각이, 나쁜 행동거지가 범죄로 폭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나는 왜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일까?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고 살다보니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자", "다시는 그러지 말자",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 어두웠던 내 모습이 싫고 벗어나려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용기 내서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수많은 거짓으로 가려진 나의 모습을 다시 되찾는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고 잠드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식과 각오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변하고 싶어하는 의지와 변할 수 있다는 나의 간절함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숨지 않고, 어둠과 정면으로 맞서자고 내 마음이 어둠을 저 멀리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살자고, 이제는 살아가자고" 외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이 하루는(매일은) 아직 살아보지 못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만약 지금까지 '변하고 싶다'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며, 아마 변하고자 하는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겁니다.

"손 씻겠습니다." 나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작품평 육체는 항상 위험한 유혹에 빠져들기 쉽지만 영혼은 유혹으로부터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손을 씻겠다는 작자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다짐으로 보이는 글에 응원을 보냅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김태종

여름휴가 시즌이 왔다. 친구들과 함께 여름휴가 계획을 세웠다.

등산, 텐트, 코펠, 식기 등을 챙겼다. 우리는 5명이 함께 여행하기로 했다. 강원도 바닷가와 산을 여행하기로 하고 1일차는 경포대에서 보내고 2일차에 설악산 등반하여 외설악으로 내려오는 코스로 계획을 세웠고, 외설악에서 철원군 쪽으로 이동하여, 매월폭포, 임꺽정 촬영장소, 산정호수, 한탄강 래프팅을 즐기기로 했다.

경포대에 도착해 텐트를 치고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즐겼다.

경포대에는 연인들이 많았고 솔로들, 단체 여행객도 많았다. 우리는 밤이 깊을수록 분위기도 무르익어 신나게 놀고, 여자 꾀기에 들어갔다. 각자 흩어져서 놀러갔다. 나는 바닷가 해변을 산책하면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고 있었다. 한참을 걷다가 여인 하나가 바닷가에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한눈에 반해 버렸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이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곁으로 가서 말을 하고 함께 산책을 했다. 그러다 해변에 들어가서 뛰어 노는데 갑자기 총부리가 우리에게 겨누고 군인이 다가왔다, 우리는 체포당해서 군부대로 끌려갔다. 왜 그곳에서 놀았냐고 묻기에 산책하다 모르고 들어갔다고 했는데 군인들이 믿어 주지를 않고 간첩으로 밀어 붙였다. 나는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가족에게 연락하고 삼자대면을 한 후에 풀려났다. 여자 친구를 위로해 주었고 둘이서 함께 여행을 하기로 했고 친구들과는 의논 결과 각자 헤어지기로 했다. 나는 여자 친구와 함께 매월 폭포에 들러서 사진과 식사를 했다. 우리는 빠르게 깊어지고 있었다. 서로 좋아하게 되었고 계속 만나기로 약속했다. 산정호수와 한탄강 래프팅을 즐겼다. 어느덧 밤이 찾아 왔다. 산정호수 근처 모텔에 방을 얻고 밖에서 놀다가 새벽에 숙소로 들어가 잠을 잤다. 서울에 올라와서 여자 친구를 배웅해 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회사에 충실하고 연애에도 충실했다. 출장이 많아서 나는 회사일이 바빴다. 출장을 전주로 갔다. 근처에서 여자 친구를 만나고 데이트를 즐겼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다. 내가 대학원 졸업 후에 결혼하기로 했다. 그리고 헤어졌다. 출장업무를 끝내고 복귀하는데 소나기가 내렸다. 나는 운전을 천천히 하면서 올라오는데 갑자기 차가 미끄러졌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핸들을 잡고 차를 멈추려고 했는데 통제가 되질 않고 이리저리 꽝꽝하면서 보호난간을 받고 있었다. 통제가 안 되어 나는 죽었다는 생각이 들고 인생의 파노라마가 머리를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나는 포기하고 눈을 감았다. 그때 꽝하면서 차가 멈추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차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나갈 수가 없고 앞에서는 연기가 자욱이 쌓여 있었다. 한참 후에 119가 와서 구출해 주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

여자 친구가 면회를 왔다. 옆에서 울고 있었다. 나는 여자 친구를 위로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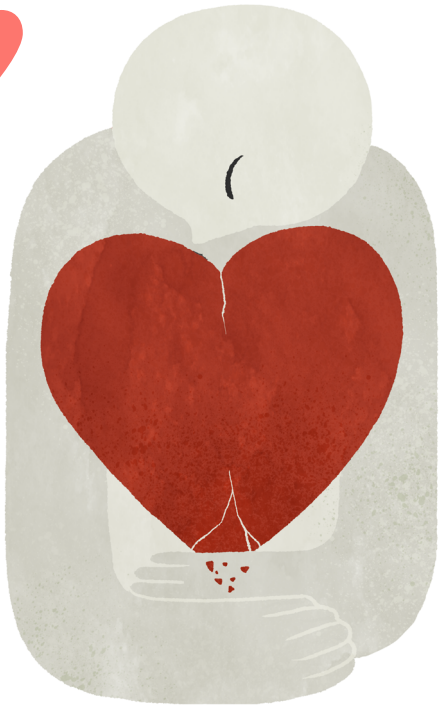
사고 이후 우리는 서로를 더욱더 사랑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나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결혼을 했다. 그리고 아들, 딸 둘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아들은 축구를 호나우두처럼 잘하고 학교에서 축구 선수로 유명해졌다. 딸은 똑똑해서 과학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아 중국 여행을 갔으며 KBS 뉴스 시간에 인터뷰한 내용이 TV에 방송되었다. 그리고 아내는 준공무원으로 교육자로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주말에는 가족 모두 모여서 여행과 스포츠를 즐기면서 살고 있다.

작품평 | 가정생활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하는 것은 창조적인 행위처럼 아주 생산적인 감동을 안겨주지요. 밝고 아름다운 사연처럼 인생여행도 감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 기

이른 아침



장종원

하루에 시작과 같이 진행되는 인원점검
밤새 강건함을 알리는 시작과
또 다른 하루에 시작

잠시나마 다른 수용자들이 모르게 살며시
눈을 감고 마음의 소리로 나 혼자에게
속삭이듯 눈을 감고 기도를 해본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주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루도 강건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나의 잘못을 한꺼풀씩 벗겨내는
마음으로 진정성을 갖고 반성을 하고 나면
한결 나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남 모르게 느낀다~
나는 작은 행복을 찾은 것이라 생각하기에
오늘 하루도 행복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도...내일도.... 나의 잘 못을 다 벗겨내는 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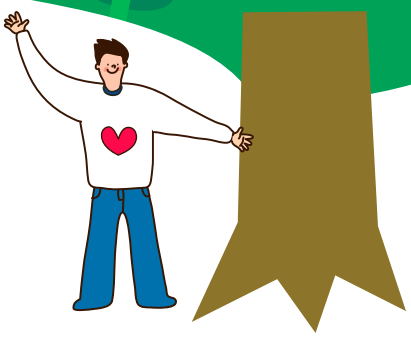
작품평 | 스스로를 반성하고 다스리는 모습이 짧은 글에도 잘 나타난 글입니다.

"수기"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수필가 원정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수 필

희망나무

박자호



‘○○교도소 방송대’ 학과장에 간이 도서실 창문너머로 자리한 작은 동산에는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단풍나무 등 쭉쭉 뻗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키를 자랑하는 잣나무 꼭대기에는 촘촘히 지어놓은 까치집이 있는데, 바람이 몹시 부는 날에는 꼭 바이킹을 타는 것처럼 불안하게 보이기도 한다.

나는 방송대 이학년에 재학 중이다. 매일이 같은 일상은 어떤 때에는 방송대에 처음 입학할 적에 품었던 초심을 무색하게 만들기도 하고, 시험이 주는 무게가 피곤함을 주기도 할 때면 나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 커피한잔과 함께 나만의 액자 속 작은 풍경 속으로 빠져들곤 한다. 가만히 작은 숲을 응시하며 귀를 기울이다 보면 새들의 대화소리, 나뭇가지 사이로 스쳐지나 가는 바람소리, 오랜 시간 켜켜이 내려앉은 낙엽들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면 어김없이 청설모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와 요리조리 뛰박질에 장난을 친다.

잠깐이지만 이 고요한 침묵의 소리가 나에겐 그 어느 것 보다도 활력소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들꽃 피어오른 봄과 초록의 산뜻함을 한아름 가득 안은 여름을 지나서 갈색 바바리 깃을 세운채로 고독의 쓸쓸함을 즐기는 운치라는 이름의 가을을 넘어 추운 겨울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홀로 버티어 내는 겨울나무들의 완고한 고집과 꿋꿋한 의지를 보면서 한해를 보내고 있을 때에 키 큰 나무들 사이로 유독 희고 가지도 동서남북으로 삐죽 빼죽 뻗은 메마른 작은 나무 한그루가 눈에 들어왔다. 꼭 죽은 나무처럼 보였다.

보면 볼수록 무슨 나무일까 하는 궁금증과 안쓰러운 마음은 더해갔고 녀석과 나는 긴 겨울을 하루에 한 번씩 안부를 물으며 봄이 오길 기다렸다. 헐벗어 앙상한 몸으로 추운 겨울을 버티어 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녀석에게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래 곧 봄이 올 거야. 너에게도 나에게도 서로에게 주어진 시절인연에 따라서 봄은 올 거야'

그렇게 하루가 가고 겨우내 언 땅에서 초록의 생명이 하나둘씩 싹을 틔우고, 섣달에 피는 납매가 꽃봉오리를 맺고, 하얀 목련이 고개 떨구어 낼 때쯤 그 앙상하고 메말랐던 희망나무에 아주 미세하게 초록의 기운이 서려 있는 것을 발견 했을 때에 그 기쁨이란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밀려왔었다. 첫 싹을 틔운 후 부터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가지마다 온통 생명의 기운이 넘실거렸고 살랑살랑 봄바람에 기대어 손을 흔들어 주었다.

기뻤다. 다시는 싹을 틔우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그 작고 메말랐던 나무가 여봐란 듯이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저 때를 기다린 것뿐이라고 말해주었다. 어쩌면 나는 희망나무를 통해서 나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앞날에 산재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나를 위한 이정표 같은 것이라고 하나,둘 지나쳐 가다보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라고 겨우내 잘 견뎌내어 준 희망나무가 나에게 길을 보여준 셈이다. 남은 방송대 생활을 마치고 나면 나는 또 다른 이정표를 향해 나아가겠지만, 희망나무와의 인연은 오랫동안 나의 가슴속에 살아 숨 쉴 것이다.



작품평 : 나무의 변화를 관찰하며 희망을 부여한 글에 행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진리는 날짜 지난 신문에도 웃는 아이의 얼굴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진리를 진리로써 바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풀꽃에게조차 부끄럽다

박광

아직 3월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따스한 햇살에 이끌려 어느 볕 좋은 날 작은 화단을 둘러보았다. 아직도 겨울의 끝자락에서 벗어나지 못한 찬 기온 가운데 성미 급한 이름 모를 잡초가 쌀알같이 작은 꽃을 한 송이 피웠다.

겨우내 얼어 죽지 않고 견디기에 대견하다 하였더니 누구보다 일찍 꽃을 피우고 싶었나보다.
그렇다면 성미 급하다는 표현은 나의 편견일 수도 있겠다.
꽃을 피울 때가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늘진 곳에 자리 잡은 탓에 오히려 꽃피우는 시기가 늦은 것은 아닌지!

한 송이 작은 꽃을 피우기 위해 견딘 힘든 여정이 있었겠지만 본질이나 과정보다 결과만 평가해 작은 꽃이라고 표현한 것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만물은 각자의 본질(DNA)과 삶의 방식대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 크거나 작거나 분별없이 맡은 바 역할대로 역량껏 소임을 다하며 이 세상에 더불어 공존하는 구성요소일 뿐인데 실체 없는 잣대로 분별하는 옳지 못한 실태에 고소를 머금는다.

이른 봄, 겨우내 시련을 견딘 풀꽃들이 피워내는 꽃잎은
여름이나 가을에 피워낸 꽃들보다 왠지 수줍게 느껴진다.

모진 시련을 견디며 꽃피울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기에 보란 듯이 뽐내어도 될 법한데 수줍게 피어나는 꽃잎에서 겸손을 느끼게 된다. 가냘픈 풀꽃조차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몫을 훌륭히 감당해 내는 것을 보니 또한 부끄럽게 느껴진다.

풀꽃에게조차 나는 부끄럽다.
속죄하고자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말하고 있지만 지나고 보면 부족함에,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오는 것을 볼 때 말부터 앞세우고 있음을 꾸짖는 회초리일 것이다.

욕심을 내려놓고 보면 사형수의 신분으로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감사합니다.' 하고 그저 살아가기엔 면목이 없고 부끄러워 풀꽃 뒤에라도 숨고 싶다.

예쁘지 않다고 내 기분대로 세상에서 뽑아버린 생명들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어 너무 미안하다.

그럼에도 모진 추위를 견뎌내면 나에게도 꽃을 피워낼 DNA가 존재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나를 보며 살아있으니 살고 싶은 본능이란 핑계로 감추려 하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랴.

지난 24년 동안 식물을 가꾸며 배운 것은 부끄러움과 겸손 그리고 미안함과 생명의 소중함이라 그나마 다행스럽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밟아 가는 땅을 굳게 하소서.

작품평 : 작은 풀꽃을 보고 생명의 소중함을 가득담은 회한의 글에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이와 같이 적은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고 먼저 자기의 마음에 평온한 기운을 심으면 어질고 평화로운 삶을 얻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낸 사랑의 바이러스



조금성

봄은 한해를 시작하는 출발점이기에, 꿈을 머금고 살아가는 이들에겐 한없이 기다려지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내게도 자그마한 꿈과 희망이 있었기에 마냥 기다려졌었다.
이처럼 기다려왔던 이유는 매년 사회복귀과에서 실시하는 문화프로그램 때문이었다.

나는 그동안 기타와 오카리나 그리고 합창과 뮤지컬, 캘리그래피 등 배워왔었는데, 배우는 내내 그 시간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었기에 때로는 이런 호사를 내가 이곳에서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였다. 그랬기에 올해는 또 어떤 프로그램이 내 삶을 또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게 해줄지 자못 궁금했던 터였다.

그러던 올해 초,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웬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감염병이 돌아 아시아권으로 점차 확산돼가고 있다는 뉴스였다.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식을 접했을 때만해도 뭐 그러려니 생각했었는데 차츰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염속도가 눈이 부실정도로 빨랐다.

처음엔 몇 명으로 시작했던 바이러스가 수백·수천·수만 명으로 확산되는 건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사망자는 하루 천여 명씩 생겨나, 말 그대로 참혹한 현장 그 자체였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속도는 인터넷속도만큼이나 빨랐으며, 치사율 또한 10퍼센트에 달하는 나라들도 있었다. 조그만 집단에서 시작한 바이러스가 도시로, 국가로,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정말 찰나의 순간처럼 순식간의 일이었다.

얼마 전에 좀비가 들끓는 꺼림직한 영화를 본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현실처럼 느껴지기는 처음이다. 정말 섬뜩하고 끔찍할 뿐이다.

하루에 밀려드는 천여 명의 시신을 미쳐 다 처리하지 못하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넓은 공터를 다져 관들을 켜켜이 쌓아놓는 장면을 TV로 보면서, 이건 재난이 아니라 거의 재앙수준이라고 느끼기 까지 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대처를 잘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를 극복한 모범국가로 지정되기까지 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의료부스를 만들어가며 진료를 했던 의료진들, 자동차 부스를 이용해 2차 감염자를 막았던 검사조치들, 그리고 적재적소에 맞는 검사장비 등을 통해 하루에도 만여 명 이상을 계속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기에 결국 지금처럼 코로나에서 그나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정말 위기와 극복에선 최고의 민족이다.

이처럼 지혜와 슬기가 함께한 의료기술과 감염병 예방대책 방안 등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마침내 국내의 모범사례들을 배우러 오기까지 했으며, 더불어 그에 딸린 의료장비들과 진단키트까지 수출하게 됐다.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덕분에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앞으로 몇 년 후면 또 코로나에 버금가는 바이러스가 분명 찾아 올 것이다. 어쩌면 지금의 코로나바이러스는 그에 따른 예비신호탄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우리가 지금껏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겪게 된 경험 등을 토대로, 앞으로의 감염병 예방대책에 기본 메뉴얼이 꼭 만들어졌음 하는 바람이다.

감염병은 예방 그 자체가 곧 백신이라 생각한다.
지금처럼 각자가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제대로 했을 때, 비로소 2차 감염은 막을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곧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동료와 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애국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관심과 배려의 간격이었으며, 결국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간격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단코 지켜야 할 '국민의 의무며, 국민의 수칙'임을 꼭 명심해야 할 것 같다.

전 세계가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가장 먼저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와의 사투에서도 자신보다는 환자들을 먼저 생각했던 의료진들과 간호사, 그리고 숨은 봉사자 분들 때문이었다. 그분들이야 말로 진정 내 가족을 살리고 내 나라를 구해준 은인들이며 일등공신이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면서 눈에 띈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마스크였다. 비록 그 무게야 몇 그램밖에 나가지 않겠지만, 그것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었던 것인 만큼 정녕 산소호흡기와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마스크의 새로운 발견이었다.



이번 우리 소에서도 코로나에 적극 맞대응해 외부인과의 차단을 가장 먼저 시행했으며, 몇 개의 사동을 1인실 격리 사동으로 만들어 사전통제를 거듭 시행했다.

마스크 지급도 수시로 해주신 덕분에 지금껏 단 한명의 확진자도 없이 너무도 건강한 수형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소의 모든 교도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정작 배우고 싶었던 문화프로그램의 꿈은 물건너가서 아쉬움은 크지만, 대신에 출소 후에 꿈꾸었던 복지시설과 요양시설의 간병인에 대한 꿈은, 의료진들과 봉사자분들의 말없이 전하는 사랑의 손길들을 보면서 더더욱 꿈을 굳힐 수가 있게 되어 천만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분들 덕분에 올 여름도 뜨거운 열정으로 봉사의 꿈을 불태울 수 있을 것 같다.



작품평 : 물고기가 낚시 밥을 삼킬 때는 자신의 생명이 다른 세계로 인도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나, 인간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깨닫고 그 길에서 멈춰 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욕망에 빠져서 지금 코로나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으며 그것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고 사랑의 바이러스로 봉사활동을 꿈꾸는 작자의 아름다운 마음이 엿보이는 글입니다.

"수필"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수필가 원정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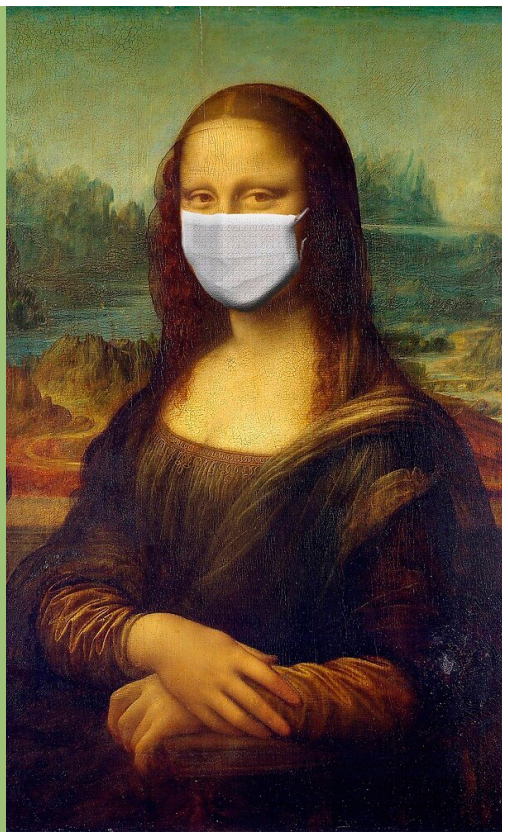


쥘 엘리 들로네, 로마의 흑사병 | 길거리에는 시체가 즐비하고 기둥 옆 계단에 몸을 기대고 있는 남자의 몸은 이미 검게 변하였고 그 옆의 여인은 절규하고 있다. 격렬하게 대문에 창을 꽂고 있는 남자와 그 옆의 천사는 마치 대문 속에 무엇인가 공포스러운 것을 죽이려 하는 듯 하다. 서기 165년, 로마의 풍경이다.

미술에 표현된 전염병, 그 공포의 기록

김상철 | 동덕여대 교수

코로나 사태로 세계는 그야말로 혼돈의 상황입니다. 평화롭던 일상은 어느새 사라지고 날마다 코로나 확진자 수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잠잠해 질 듯 하다가도 어느새 또 위기가 느껴지고,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태한 상황이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방역이 어느 정도 성공하여 통제가 되고 있는 느낌이지만, 다른 나라의 상황은 그야말로 언제, 어떤 곳에서 무슨 일



마스크를 쓴 모나리자 |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나리자 역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현실이다. 작품의 소장처인 프랑스 루브르 미술관의 휴관을 풍자하는 그림이다.

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역적인 유행병 정도로 치부되던 것이 급기야 세상을 멈춰 세워버리고 사람들의 삶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고, 언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바이러스, 그리고 전염병에 대해 그 위력과 위험성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세균과는 다른 것입니다. 크기도 세균보다 훨씬 작아 보통의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물도 무생물도 아닌 상태로 존재합니다. 바이러스는 핵산과 그것을 둘러싼 단백질 껍질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세균과 달리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물질대사를 할 수 없어서, 반드시 다른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 그 세포 안으로 침입하여 기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모든 종류의 세포를 숙주로 침입하지는 않으며, 바이러스에 따라 숙주 세포의 종류가 서로 다릅니다. 숙주 세포에 따라 동물 바이러스, 식물 바이러스, 세균 바이러스로 구분하는데,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는 독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홍역,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 간염 등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하여 세계보건기구, 즉 WHO는 '팬데믹'을 선언 했습니다. 이는 전염병의 경계단계를 6가지로 나누는데, 그중 최고 위험등급입니다. '팬데믹'은 그리스어로,'팬'은 '모두'를, '데믹'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특정 전염성 질병이 최악의 수준으로 유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팬데믹'은 전염된 환자의 수보다는 얼마나 광범위하게 전파됐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즉 얼마나 많이 감염시키는 것보다 얼마나 널리 감염시키는 전염병인가를 경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만 떠돌며 매년 수십만 명을 사망케 하는 질병의 경우에도 이를 '팬데믹'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령된 '팬데믹' 선언은 2009년의 신종 플루로 당시 214개국에서 환자가 발생해 1만 850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염병의 위력은 정말 가공할 만 합니다. 특히 치명률은 높지 않으나 전염력이 가공할 정도입니 다. WHO는 이미 21세기를 '전염병의 시대'라고 규정하였으며, 이를 '제3차 세계대전'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전염병은 세계대전과 맞먹을만한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였고, 역사의 흐름 자체를 바꿔 놓기도 했습니다.

전염병은 인간과 미생물, 그리고 환경이라는 3가지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하고 변화합니다. 따라서 시대와 사회, 환경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여 때로는 갑자기 폭발적 유행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조용히 무대에서 사라져 버리기도 하지요. 20세기 중반부터 항생제와 백신의 개발, 경제 사회적 여건의 전반적 향상으로 전염병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또 쉽게 예방과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한때 전염병의 시대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전염병은 소멸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활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염병은 원래 변화하는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염병의 빈도나 종류, 중증도 등은 끊임없이 변화하여, 새로운 전염병이 난데없이 출현하기도 합니다. 또 오랫동안 잊혔던 병들이 돌연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항상 변하는 것이야말로 전염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기에 예방과 치료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생명이 탄생한 태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병원성 미생물은 공존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미생물에서 비롯



니콜라 푸생, 아슈도드에서 창궐한 전염병 |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은 페스트의 공포를 그림 그림이다. 화면 중앙의 어린아이는 피부가 회색으로 변해 죽어가는 어머니 곁에서 하늘을 보며 구원을 청하고 있고 지나가고 있다. 광장 곳곳에는 쥐떼가 그려져 있어 페스트의 원인이 쥐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되었지만 인간과 병원성 미생물들의 역사적 관계는 단순한 공존의 관계는 아니었으며, 특히 병원성 미생물들로 인한 수많은 전염병들은 인간의 역사를 수없이 변화시켜 왔지요. 과거로부터 인류를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의 위험으로 몰고 갔던 질병의 대부분이 전염병이었던 만큼, 의학의 역사는 이와 같은 전염병의 원인과 치료 및 예방법 등을 알아내고자 했던 인간의 노력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인간은 거의 언제나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었습니다. 태고적부터 인간과 동고동락해 온 미생물들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하나의 문명을 몰살시킬 수 있는 전염병을 주기적으로 일으키곤 했으며, 이러한 전염병들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오랜 전염병의 역사 속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전염병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테네의 황금시대를 몰락시킨 것은 홍역과 두창

이었으며, 로마와 몽골 제국을 쇠락으로 몰아넣은 흑사병과 기타의 전염병들, 그리고 러시아정벌에 나선 나폴레옹의 50만 대군을 전멸시켰던 발진티푸스, 20세기 초 최소한 2천만 명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전염병의 역사는 단지 과거 속의 사건이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에 더 빨리 적응해 나가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에이즈, 사스 등 새로운 전염병으로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해 초래된 내성 세균의 확산도 커다란 재앙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밀집된 인구 집단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던 미생물들로 하여금 새로운 공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과학에 대한 맹신으로 전염병을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오판에서 벗어나 머지않은 미래에 닥칠 '전염병과의 전쟁'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악명을 떨친 가공할만한 전염병으로는 1300년대 중엽 유럽을 강타하여 불과 4~5년 사이에 전 유럽 인구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페스트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페스트는 흑사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병에 걸리면 피부 조직이 괴사돼 피부가 까맣게 썩는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흑사병(Black Death)'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 병은 몽골군이 유럽을 침략하는 경로를 따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간 것으로



피터 브뤼겔, 죽음의 승리 |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 군단이 사람들을 건물로 몰아넣고 있다. 탈출하려는 사람들은 해골 군인들과 필사적인 싸움을 벌이지만 희망은 없어 보인다. 양상하게 뼈만 남은 개는 시체를 뒤적거리고 있는 마을의 모습은 지옥도가 따로 없다.

전해집니다. 몽골군이 유럽을 침략할 때 페스트균도 따라 이동했는데, 몽골제국인 킵차크의 군대가 흑해의 항구도시 카파를 공격할 때, 흑사병으로 사망한 자국 군인들의 시신을 투석기를 이용하여 성 안으로 던져 흑사병이 번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스트의 창궐에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은 바닷길을 통한 전파였습니다. 1347년 흑해에서 출발한 배가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에 도착했는데, 그 배는 이미 흑사병으로 인해 사망한 시신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배가 항구에 닿자마자 배 안 쥐들은 육지로 달려갔고 곳곳에 흑사병을 퍼뜨렸지요. 유명한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 이야기는 바로 페스트가 창궐할 때 유럽 사회와 쥐떼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사람들은 흑사병을 하느님이 내린 형별이라고 생각하며 체념하며 죽은 뒤에라도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교회에 엄청난 돈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가져다주는 돈도 모자라 행운의 부적 같은 액막이 물건을 팔아서 배를 불렸습니다. 당연히 타락한 종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정치 체제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유럽은 땅을 가진 영주와 영주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노라는 신분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흑사병 이후 일손이 부족해지자 영주들은 농사지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고 임금을 올려주었으며 돈을 받고 농노의 신분을 해방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중세의 봉건 질서는 서서히 무너져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동한 '르네상스'가 전 유럽의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갑니다. 르네상스란 재생, 부흥 등을 뜻하는 프랑스어



프랭크 톰햄, 1665년 런던에서 흑사병으로부터 사람을 구하다 | 프랭크 톰햄이란 작가가 1665년 흑사병이 런던을 휩쓸 당시 어떤 사람이 남긴 일기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다. 일기에 따르면, 그림 속 부부에게는 아이들이 몇 있었는데 모두 흑사병으로 죽고 마지막 남은 딸이라도 살리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딸을 밖으로 내보내는 장면이다. 오른쪽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문아래 여인은 이미 숨을 거두었다.

지요. 타락한 중세 기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 중세 이전 시대인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인간 중심의 시대정신을 되살리려 한 것입니다. 흑사병으로 인해 굳건하던 종교와 봉건제 질서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인간 자체에 관심을 돌리면서 중세시대는 이렇게 안녕을 고하게 됩니다. 흑사병이 르네상스라는 근대의 문을 연 것이죠.

VIRUS

결국 19세기에 이르러서야 프랑스의 세균학자인 루이 파스퇴르(1822~1895)가 페스트의 원인과 치료법을 연구한 후, 인류는 비로소 페스트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스퇴르를 '미생물의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지요.

이밖에도 인류 문명사에 큰 흔적을 남긴 전염병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중 천연두는 속칭 '마마'라고 불리는 이 전염병으로 약 5억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생존자도 '마마 자국'이라는 흉터가 남거나 실명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지요.

기원전 1160년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5세가 천연두로 사망한 것이 이 병의 첫 사례로 기록돼 있으며,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가 1796년 '우두 접종법'을 발견하기 전까지 천연두의 치사율은 90%까지 치솟았습니다. 종두법 이후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천연두가 지구상에서 박멸됐다고 선언했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한 개의 냉동고에 천연두 바이러스 표본을 과학연구 목적으로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유명한 처용이 역신(疫神)을 쫓았다는 설화에서 신라시대에 천연두가 창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장군은 550명의 부하를 끌고 잉카 아즈텍 제국에 침입해, 천연두로 죽은 군인의 시체로 면역성이 없던 아즈텍인들을 감염 사망시켜 잉카문명을 멸망시킨 바 있습니다.

또 스페인 독감으로 불리는 전염병 역시 1917~1919에 이르는 약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2500만~5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는 14세기 중기 페스트보다도 훨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해 지금까지도 인류 최대의 재앙으로 불립니다. 원래 발병지는 미국 시카고 부근이었지만 당시 1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아 언론 검열이 약했던 스페인이 이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뤄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사망한 사람이 1,500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 이 전염병의 위력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제 1차 세계대전(1914년~1918년)은 스페인 독감으로 서둘러 종식되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740만 명이 감염됐고 이들 중 14만여 명이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19년의 3.1만세운동이 스페인 독감으로 흉흉해진 민심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백범 김구선생 역시 이 병을 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리아 역시 아프리카에서 30초당 한 명의 어린이가 숨질 정도로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우간다 내 서식하는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해 약 200만 명의 아이가 말라리아로 숨진다고 하니 대단히 무서운 전염병이지요. 또 '20세기의 페스트'라 불리는 에이즈는 1981년께 발병이 보고된 이후 약 2,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70~90%에 달하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스는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처음 발생해 홍콩을 거쳐 전 세계로 확산된 전염병으로, 세계 32개국에서 8,000여명이 감염됐고 774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메르스는 치사율이 약 40%에 이르는 무서운 바이러스로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



에곤 쉴레, 가족 | 우수에 젖은 눈빛과 구부정한 자세의 남자는 오스트리아 화가 에곤 쉴레이고, 그 앞에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은 그의 아내 이디트, 그리고 그녀 무릎 사이의 곱슬머리 아이는 둘 사이의 아이이다. 1918년 10월 28일, 에곤 쉴레의 아내 이디트는 스페인 독감으로 목숨을 거두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그리고 3일 뒤, 에곤 쉴레 역시 세상을 떠났다.

에서 처음 발견된 뒤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나, 2015년 우리나라에서도 38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이어 신종플루 역시 우리나라를 괴롭혔지요. 신종플루는 돼지독감이 변이를 일으킨 것으로 치사율이 높진 않지만 위험한 질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의학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그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낸 적이 없어 '은둔자의 병'으로 불리는 매독 역시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천재들의 질병'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역사 속의 유명 인사들이 매독이라는 질병으로 그들의 영혼마저 유린당하며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나마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던 항생제인 페니실린의 출현 이후 매독은 역사 속의 질병으로 우리의 기억에서 희미해져가고 있지만, 과거 유럽 인구의 15% 정도가 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바이러스와 전염병들은 과거 가난한 나라의 질병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홍역이나 결핵 같은 질병들이 선진국에서도 다시 나타나고 있어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간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미생물이 아니라 음주, 흡연, 식습관 등 자신들의 부주의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약과 무분별한 성관계, 빠른 세계 여행, 환경 훼손, 새로운 의술의 발달, 기후의 변화 등과 같은 전염병의 발생 및 전파와 관련된 주변의 변화를 간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20~30년 사이에 인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신종 전염병을 거의 매년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과거와는 달리 외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많아짐에 따라 감염 질환에 노출될 기회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과, 원래 동물에서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대해 사람이 평소에 방어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1,300년대 중국에서 발생한 페스트균이 상선을 통해 이탈리아로 전파되는데 10년이 훨씬 넘게 걸렸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데도 5년 이상 걸렸지만, 21세기에 출현한 첫 신종 전염병인 사스는



에드바르 뭉크, 아픈 아이 | 표현주의 화가 뭉크는 어머니와 누이를 모두 결핵으로 잃었다. 누나의 죽음을 지켜봤던 기억을 떠올려 그린 작품이라고 한다. 침대 옆에 앉은 여인은 엄마 대신 조카들을 돌봤던 뭉크의 이모로 알려져 있다.

불과 며칠 안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 30여 개국으로 퍼져나간 과정이야말로 앞으로의 전염병이 어떤 모습으로 인류를 공격할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커다란 사건이었지요. 어떻게 보면 사스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더 강력한 신종 전염병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 하나의 실전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그 본격적인 시험대인 셈이지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변화와 문제들은 내일도 계속 될 것이며, 전염병도 이러한 여러 요인에 의하여 부침을 보일 것이 틀림없는 일입니다. 전염병은 새로운 세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위협으로 존재할 것이며, 역사를 변화시킬 충분히 가공할만한 위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인간이 완전하게 승리한 바는 없다고 하지만 이제라도 인류는 장차 닥쳐올 전염병과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핵무기와 같은 무서운 과학문명의 산물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치명적이고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환경변화를 비롯한 생태계의 위기, 그리고 극히 작고 미미하여 존재감조차도 확인하기 어려운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창궐이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인류는 장차 다가올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고병진

저는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살인미수”라는 죄명으로 1심 재판에서 구형 10년에 8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중인 고병진입니다.

49년을 살아오면서 저의 오만과 착각 속에서 저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며 저만의 최면에 걸려 형제들의 사랑과 깊은 뜻을 모르고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형제들에게 그동안의 잘못을 용서를 빌고자 이 글을 씁니다.

1972년 충북 ○○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11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접니다. 형 누나들이 많다보니 당연 귀여움도 받고 자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와 부모님, 형이 두 명에 누나들은 여섯 명 그리고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세 명의 형제까지 그야말로 대가족 이었습니다.

저의 집은 당시 마을에서 몇 안 되는 기와 집이였고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두 분의 삼촌들께서 열심히 사셨기에 일개 면에서 부잣집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고 부모님께서는 도청 소재지이자 교육의 도시인 청주에서 유학을 시키셨습니다.

저도 그 영향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청주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형과 누나들하고 자취를 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였지만 누나들이 그 몫을 다해주었기에 무사히 학업을 마쳤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제가 어릴 때 여자 형제 중 둘째 누나가 약혼식까지 하고 뇌종양이라는 병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

형제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께서는 대성통곡을 하시며 많이 슬퍼 하셨습니다. 물론 어린 저로써도 감당하기 힘든 일 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짐을 덜어 들이기 위해 대학을 포기하고 대기업 공채 시험에 응시 하였지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특채로 당시 S사에 합격을 하여 남들한테 부러움을 받으며 저의 사회생활은 시작되었고 그것도 잠시 군복무와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1년 6개월 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는 시간의 흐른 만큼 변화되어 직장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형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일을 도와주다 우연히 대기업 공채 소식을 듣고 재도전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L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막내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동네잔치까지 하셨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했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때 당시 L사는 우리나라를 IT강국으로 가는 길에 일조했던 반도체 회사였고 호황기였기에 회사도 승승장구 했습니다. 지금의 아내도 이때 만나 연애와 결혼까지, 저의 인생은 막힘없이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내도 같은 회사에 근무했기에 작지만 아파트도 샀고 부모님께 두 번째 효도를 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IMF와 사회의 혼란이 오고 저희 회사도 빅딜 한다는 소문과 낯 설은 이들의 방문도 많아지고 인수 합병 이야기가 나올 때쯤 노·사 충돌까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목표가 있었기에 혼란한 시대에 퇴사를 결심하고 아내와 저는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사와 동시에 개인 사업을 시작했고 직장과 연관성이 있어 그런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들은 다 모였는데 셋째 누나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매형이 목사님이라 교회에 오시는 신도들 때문에 하루 늦게 왔습니다.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누나와 매형한테 모진 말과 함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큰형하고는 큰형의 주사로 싸움까지 했고 막내 매형하고는 사업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했으며 넷째 누나하고도 의견 차이로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과 저는 서로를 원망하며 왕래없이 지냈습니다.

사건이후 유치장에서 구치소까지 오면서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작은형과 막내누나 이외에 연락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의 소식을 듣고 저의 빈자리를 큰형이 대신해 아들의 학자금이며 생활비 그리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것들을 누나들과 형들이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의견차이로 심하게 다투었던 넷째 누나는 화상접견을 하는 내내 울먹이며 기도 많이 하라고 하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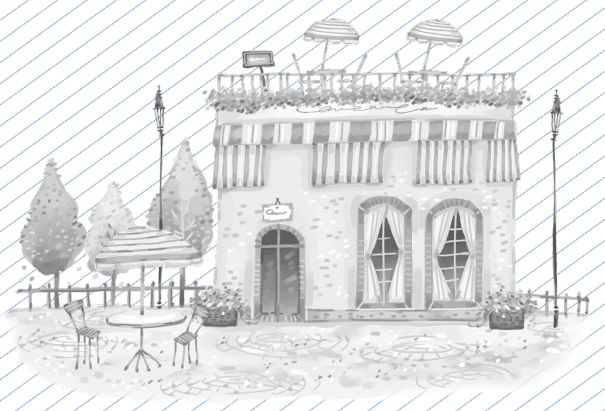
저의 이기적인 생각과 어리석었던 행동들이 가슴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함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 일로 잃은 것도 많지만 멀어졌던 형제들과 다시 예전의 화목했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며 가족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막내누나 서신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막내야 너한테는 우리 형제들이 있으니 아무걱정 하지마”라는 말에 힘을 얻어 오늘도 반성의 시간을 가져 봅니다.

막내 동생이

작품평 : 11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으니 귀여움을 많이 받으며 자라났을 것입니다. 형수나 매형의 귀여움도 많이 받았을 법한데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과오는 작아 보이고 타인의 허물은 커 보이는 법입니다. 부모형제와 일가친척은 타인도 아닙니다. 피붙이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자세,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자세가 필요한 우리네 삶인데 쓸데없는 자존심이 나를 병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슴을 열 때, 멀리 있는 형제가 다가올 겁니다. 과거는 가슴에 묻고 새 삶을 열어가십시오.

용서를 구합니다



김지애

맛있게 드세요. 식수를 주며 배식을 하며 커피·라면 물을 주며 늘상 하는 말, 하루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어느덧 구치소 내 사동 도우미를 한지 20개월, 직접 요리하는 음식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따뜻한 식사를 위해 손과 발걸음을 서두르고, 한 국자 한 그릇 조심스럽게 담아 TV에서만 보았던 배식구에 넣습니다. 다름 아닌 저는 ○○구치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동 도우미 070번 김지애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미련하고 헛된 욕심으로 3년의 형을 받고 지금 2년째 살고 있습니다. 어린 두 딸을 남편과 연로하신 시부모님께 맡긴 채로 매일을 시름하다, 방생활을 함께 하던 분들의 추천으로 사동도우미를 하게 되었지요. 무거운 배식 통을 들고 구매물품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일이란 쉽지 않았고, 때로는 이유 없는 시비와 모진 언행에도 별다른 대응할 수 없어 사과하고 비워내는 과정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던 것처럼 이곳의 사소일이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격려와 희망의 말씀을 해주시는 주임님, 계장님과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출소할 때가 되면 정들어서 나라를 잃은 것처럼 울고 있는 저를 볼 때마다 이곳이 감옥이란 생각을 잊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동은 특이수용자들이 독거 생활 하는 곳인데 어느 날 한분이 선인장 그림을 그려 달라 하기에 주임님의 허락 하에 선인장을 그려주니 선인장 가시에 손이 베었다고 우는 모습에 숨기기 힘든 웃음이 나고 열심히 거실정돈과 사동 청소를 하며 환경미화에 힘써, 부상을 받아 사동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었으나, 아쉬운 소식을 전해 들으면 입이 코까지 나와 씩씩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 하루, 한 달을 보내고 나니 입소직후 겨우 살아지니깐 사는 거란 생각으로 비관했던 저의 모습이 조금씩 흐려져 갑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의 길이란 참 여러 가지인데 저는 걷기 편하고 보기 좋고 깨끗한 길로만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길의 끝이 이런 모습이란 걸 전혀 짐작 못한 건 아닐 텐데 말이죠. TV에서만 보던 재소자 착용복은 저의 평상복이 되었고 알 수 없는 번호표는 저의 이름을 대신하고 생소하던 재판 관련 용어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지 오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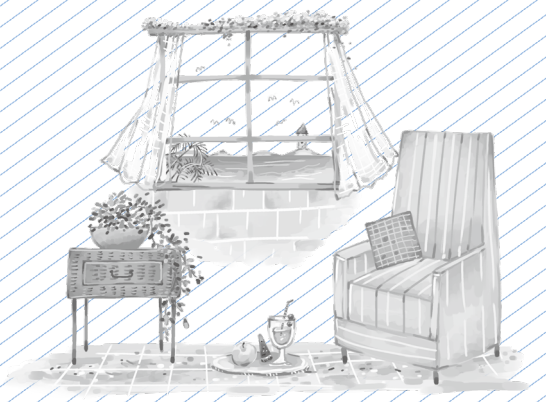
누구나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 있기에 지금으로부터의 새 길은 얼마든지 낼 수 있단 생각을 합니다. 반성과 후회는 저의 부덕한 과오를 늘 따라 다니며 저를 채근하는 등 37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이렇게 고되지만 이 자리를 비로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허영심과 무리한 욕심에 비겁함까지 더해 벌인 일로 피해를 본 피해자를 비롯하여 꽃보다 예쁜 우리 두 딸들, 노년에 쉬지 못하시고 손녀들 돌봐 주시느라 힘드실 시부모님, 혼자 힘겹게 가정을 이끄는 남편, 모든 것이 본인 탓이라며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와 돈독한 우정이 뭔지 절실하게 느끼게 해준 소중한 친구들, 저의 출소를 기다리시며 건강 챙기신다는 90세의 친할머니, 저를 하염없이 지켜보실 하늘에 계신 아빠, 그리고 혹여 저의 부족함으로 결례를 범했을 수용동 사람들에게 미안함의 용서를 구합니다. (맛있는 반찬 정말 부족해서 더 드릴 수 없었고, 관규에 어긋나는 부탁은 협조할 수 없었고, 무엇에 관하여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저의 도움이 미비했다면 약간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꾸벅-)

마지막으로 저마다의 상처를 다독이며 매일을 반성하는 이곳의 사람들이 올바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건강한 기회가 빨리 닿길 바라며, 혀끝이 봉사라 부르짖어도 손끝이 못하면 봉사가 아닌 것처럼 진심과 애정을 담아 봉사하면서 남은 형기 건강하게 보내기를 함께 일하는 사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성난 파도가 무엇을 가져올지, 모두 펼쳐질 미래를 위해 매일 열심히 사는 수밖에요. 용서와 감사의 마음을 잔뜩 펼치며 글을 마칩니다.

작품평 : 취사반에서 만든 음식을 각 사동으로 배달하는 사동 도우미를 하고 계시는군요. 3년 형기 중 20개월이 지나갔으니 남은 16개월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두 따님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헛된 욕심이 수의(囚衣)의 세계로 인도했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그곳에서 산다면 보람 있는 나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소하면 이타적인 삶을 살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으면 미안하지만 도움을 주면 흐뭇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글



선광영

37년 인생을 헛살아온 지난날을 참회하고 제 자신을 용서합니다. 저는 여러 번의 처벌을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다시 구속이 되어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다짐을 하며 수용생활을 마지고 출소를 하게 되면 왜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걸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답은 구속되기 전 생활이랑 출소 후 생활이 변화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 항상 외롭고 정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사람들이 잘 해주면 그 사람이 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고 그 사람이 시키는 무엇이든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가족들과 멀어지고 한탕주의에 빠져 허왕된 욕심에 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 했습니다. 사지 멀쩡하게 태어나서 가진 것은 건강한 몸뚱아리 밖에 없는데 열심히 살지 않고 욕심을 부린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며 용서란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되돌아보며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다보니 취직이 되지 않는 절망감에 빠져 사회를 비관하며 살아온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고 이번 수용생활은 책도 읽고 공부도 하며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피해 보신 피해자분들과 저를 믿어 주시는 가족들은 무슨 죄일까요? 피해자분들께 편지를 작성하여 용서를 구했지만 제 다급함 때문에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 제 자신을 반성하고 평생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이기에 진심의 마음을 담아 평생토록 피해자분들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며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매번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제 지인들이 믿어 줄까? 그냥 살던 데로 살으라고 말을 하는데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전 해보고 싶고 저를 믿어 주는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수형생활 속에 제 자신을 가꾸고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이 반성하며 머리 숙여 정중히 사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방부선 여사님' 늘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리지 못하는 이 못난 아들을 끝까지 믿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헛되이 살아온 제 자신에 대한 죄값 깨끗이 치루고 출소해서 꼭 효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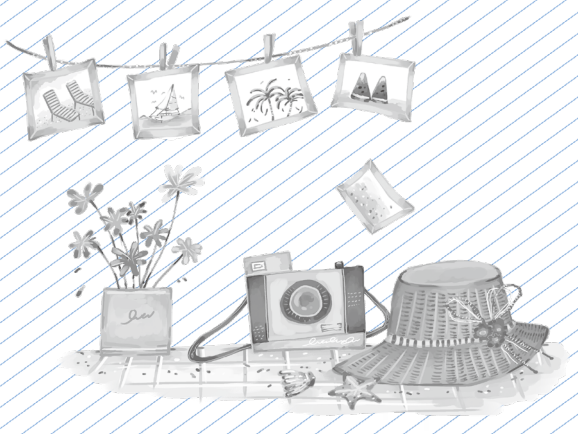
제가 어렸을적 어머니께서 자궁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하신다고 의사선생님께 듣고는 어린 저를 바라보며 암과 극심한 고통을 참으며 싸웠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제 눈에서 눈물이 나며 어머니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한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살아오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과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며 평생 여력이 닿는 만큼 매월 1~2회 사회봉사에 참여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장 소중한 어머니께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작품평 : 37년을 살아오면서 전과를 여러 개 달았으니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분도 적지 않겠지만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이 겪은 고통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내 한 몸이 우리 사회에 별 쓰임이 없이, 피해와 고통만 주다가 끝난다면 얼마나 허망한 한 사람의 일생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달라졌다'는 말을 듣게끔 멋지게 한 번 살아보기 바랍니다. 30대이니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어머니께 맛있는 것을 사 드리는 것에 있지 않고 내 아들이 저런 일을 하다니 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용서를 구합니다



한동훈

징역 7년. 불혹이란 40대의 삶을 살아오면서 난생처음 영어의 몸이 되었건만 막상 제 자신에게 가해진 7년이란 시간 멈춤의 세월 앞에 저의 심장은 멎은 것 같았고 제 자신도 모르게 법정에 주저앉았습니다.

법정 뒤에는 흐느끼는 울음소리, 탄식에 찬 어머님의 절규의 목소리도 잠시 아들에게 주어진 청천벽력 같은 판사님의 말 한마디에 쓰러지신 한 노모에게 법정안의 모은 시선이 주목되었고, 구급차의 사이렌소리와 함께 멀어져 가는 어머님의 모습을 지척에서 지켜보아야만했던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구치소의 접견실에서 어머님의 중병과 투병 소식을 전해들은 저는 말없이 눈물만 쏟게 되었습니다.

일찍 어머님께서는…. 저의 아버지이시자 당신의 남편과 사별하신 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식들을 꿋꿋하게 성장시킨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시고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온갖 고생으로 성장시킨 아들의 안타까운 소식과 어렵게 이룬 가정의 행복도 채 이루기도 전에 중형의 선고를 받은 불효아들의 모습을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받아들였을 어머님…. 무엇으로 이 엄청난 불효의 멍에를 씻을 수 있을지….

저는 일찍 홀어머님의 고생과 헌신적 사랑을 보면서 성장하였기에 성인이 되면 어머님의 고생을 덜어드리고자 맹세하였습니다. 저는 군 입대를 선택하였고 '부사관'으로 군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국가에 충성하면서 나름의 기술을 습득하면서 8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군 생활 중에 매월 월급을 저축하며 힘겨운 가정사에 대해 보탬이 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적령기가 되어 우연히 만난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힘겨운 가정사를 이해해주면서 제 자신의 좋은 점만 거두면서 곁에서 작지만 큰 사랑을 저에게 안겨준 아내와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체육관을 운영하며 인천에서 슬하에 2녀의 자식을 키우면서 단란한 가정의 울타리를 지켰습니다.

인생사 '호사다마'라고 말하기에는 짧은 삶을 살아왔기에 지금의 이 시련이 제 인생에 가장 큰 시련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마음속 굳은 맹세를 하지만 못난 아들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모두가 고통 속에 살아가는 현실을 생각하니 유구무언의 심정 속에 괴롭기만 합니다.

제가지은 불효와 못난 가장의 무능함을 이 세상 누구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여행을 갈 수만 있다면... 4년 전 지금의 시간 속에서 다가올 지금의 불행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의 현실을 땅을 치며 후회하기에는 너무도 먼 길을 걸어온 듯합니다.

힘겨운 하루하루의 수형생활 속에서 지금의 제 자신을 지탱시켜 주는 것은 노환의 어머님, 아내, 그리고 두 딸이 있으며 한결 같이 저에게 깊은 사랑을 주고 있답니다.

서툴지만 지금 저의 곁에는 하나님 말씀 가득 찬 성경 책에 의지하면서 나약한 저의 정신을 집중하면서 잘못된 행동과 불효에 대하여 깊은 용서를 구하려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기에….

정작 당신의 건강은 잊어버린 채 못난 아들의 무사안일을 위해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시는 나의 어머님의 깊으신 사랑 앞에 이 불효 아들은 절규하듯 통곡합니다.

어머님.
이 어리석고 못난 불효 아들은 따뜻하고 포근한 어머님의 진실한 사랑을 잊은 채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머님의 가슴 속에 영원히 뺄 수 없는 긴 대못을 박아드린 세상의 불효자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어머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떳떳하게 제대로 된 아들 노릇을 할

용서를 구합니다

것이며, 한 평생 어머님 곁에서 어머님을 꼭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불효아들은 지금 이 시간,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이지만 어머님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눈물 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수천 만 번 불러보아도 한결 같으신 어머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세월이 흘러가도 항상 오늘처럼 건강하시옵고 잘 지내십시오. 이 불효아들은 제 삶의 남은 시간을 어머님을 모시고 영원하고 행복한 삶의 울타리를 지키겠습니다.

어머님, 잘못하였습니다.
제가 용서받지 못할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불효자는 엎드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님….

작품평 : 군 생활과 부사관 생활, 그리고 결혼과 체육관 운영, 어머니와 아내와 두 딸…….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영위해 왔는데 왜 7년형을 받게 된 것일까요. 한 순간의 욕심 때문이었겠지요. 글을 보니 남은 형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께서 아들이 출소하는 날까지 꼭 살아계시기를 빕니다. 온 식구 집의 식탁에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글



김지현

어느덧 이곳 ○○교도소란 곳에 수용되어 생활한지 어언 4년 4개월가량 된 것 같습니다. 웬만한 장기수 분들에 비하면 볼품없는 세월이지만요 ^^

저의 이번 수감생활이 시작된 날이 2015년 10월 21일에 유치장에서부터 시작되어 구속심사를 거쳐서 ○○교도소에 입소가 되었습니다. 그곳 ○○교도소에서 약 3개월가량의 1심 구형과 선고를 받고 바로 항소를 하여보니 합의부 이송으로 ○○교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약 4~5개월가량의 항소심 재판의 절차를 걸치고 나자 징역형이 확정되어 현재 수용중인 이곳 ○○교도소에 오게 되어 이곳 ○○교도소가 본소가 되었습니다.

이곳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현재로부터 1년 7개월 전에 같은 수용자를 폭행한 잘못으로 조사실에서 징벌방으로 25일간 감금되어 생활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 때 있었던 그 피해자는 그 후로도 징벌이 끝나고 저와의 가끔 만남이 있었을 때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였고, 아무 일 없었듯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었습니다. 그 피해자는 절 스스로 용서를 했던 걸까요?

전 사과한마디도 그 피해자에게 해주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렇듯 사과를 하지도 않았는데 용서가 되는 것도 있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암만 사과를 하여도 용서가 되지 않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용서의 이야기는 그 제일 뒤에 있던 암만 사과를 하여도 용서가 되지

용서의 글

않는 죄를 제가 저지른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저의 현재 죄명은 성폭행 그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이복동생을 성폭행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저와 9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을 건드린 죄명으로 현재 이렇게 솔직히 밝힙니다. 그 때 제가 어떤 정신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현재 생각해보아도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부터 약 2년 7개월 전 피해자인 동생과 연락이 되어 진실로,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었습니다. 피해자인 동생에게 직접 만나서 용서를 빌지는 못하였지만 편지로 통해, 전화로 통해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용서를 빌었던 것이 약간의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저의 편지에 대한 답장이 오기 시작하였고,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주고 받으며 이런저런 농담도 오가기도 했고, 어느 때는 여동생 자신의 고민도 들어주고, 자신의 하루 일상을 적어 편지로 보내주기도 하며 제게 조금씩이나마 마음을 열어 주기라도 하듯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해 보답이라도 하듯 생활비에 보태라며 제가 이곳 전일 위탁공장에서 한 땀 한 땀 일해서 번 돈도 전혀 아깝지 않게 용돈이라며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가량의 소식이 오고가면서도 저는 항상 마음의 짐을 가지고 편지를 하였고, 피해자인 여동생이 남자친구를 사귀었고 동거를 하던 중에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저에게 밝히며 갚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저는 아무런 불편 없이 원하던 금액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되었고 지금까지 1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 꼭 갚겠다는 금액의 돈도 갚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동생이 돈을 갚지 않았던 게 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준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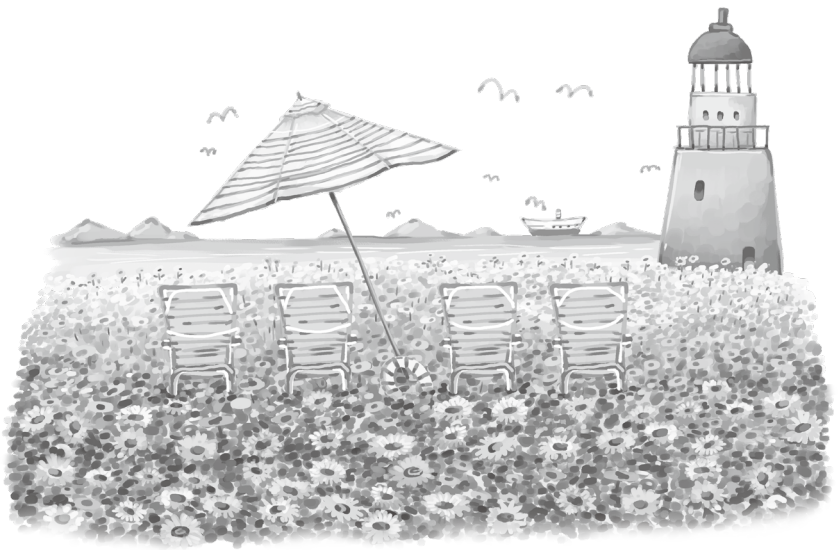
용서란 이런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받아들이기 나름인 용서. 그렇지만 저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도, 저에게 잊지 못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여동생에게도 진심을 담아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어느 한때는 같이 즐겁게 같이 생활하며 지내왔던 경진아.
형으로서 분을 참지 못해 네게 폭행을 저질러 진심으로 사과한다. 늦게나마 용서를 해다오.

내 동생 혜림아.
한 때는 정말 내가 좋다며 잘 따라주며 정말 날 좋아해주었던 너에게 정말 지울 수 없는 큰 죄를 지어 미안하단다. 비록 어떠한 용서를 빌어도 용서란 단어가 통하지는 않겠지만 진심으로 미안하고,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이렇게 저는 평생 용서를 빌겠습니다. 마음 깊이 새겨두며….

작품평 :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용기에 우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죄는 너무나 끔찍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범죄를 저지르다니! 게다가 이복동생을. 글로 보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지현 님의 참회를 믿게 하려면 실천을 통해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갔다 온 이후 사람이 달라졌다', '뼛속까지 뉘우친 게 확실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실력을 쌓기 위해 책을 많이 읽고 출소 이후를 대비해 직업훈련도 받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황진성

저는 군 장교 출신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 번영, 수호 책무에 대해 누구보다 투철하다고 자부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자괴감으로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국방부 예하 ○○부대에서 근무해 오면서, 같이 근무하다가 먼저 퇴직한 선배의 잘못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음이 많은 제가 순간 안주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잘못된 생각과 행위로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일탈이 있었습니다. 항상 저 자신을 엄격히 살피지 않은 탓입니다.

통렬히 반성합니다. '타인에게는 한 없이 부드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라'는 春風秋霜(춘풍추상)의 금언을 매일 되새기며 생활신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을 1년 남겨 놓고, 38년간 근무해온 군에서 파면처분으로 그 동안의 명예는 물론 연금, 훈장 등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인과 국방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가족들에게도 이에 따르는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의 직업으로 인해 말없이 인고해준 가족들께 이번 일 때문에 그 노고가 모두 허사로 돌아간 것은 물론, 이렇게 옥바라지 등 더 큰 고통을 안겨준데 대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들, 딸들도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대해,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을 생각

하면 먹먹하기만 합니다. 깊이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평생을 봉직해 온 제가 방심하는 사이, 명예와 보훈은 고사하고, 이렇게 죄인 신세로 전락한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임무를 수행하다가 적에게 피포되어 적국에 구금된 것도 아니고, 그토록 조국의 안위를 위해 일생을 바치고 사랑하던 내 나라 대한민국의 감옥에서 이렇게 영어의 처지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의 감방에서 많은 회한의 눈물을 흘렸으며, 제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참회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믿고 후원해 주었던 선배, 동료, 후배들에게도 한 없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많이 안타까워하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함께 나눈 전우이자, 사실 호국의 전사들입니다. 이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훼상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아울러 조직의 명예에도 누를 끼쳐 천추의 한이 됩니다.

영어의 신세가 된 지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자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외부와의 소식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 TV뉴스와 구독하고 있는 신문을 통해, 나라 안팎 소식을 접하고는 있습니다. 나라와 세상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질 못하는 처지가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조국을 사랑하고, 나라의 안위와 발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으며, 국가가 위기에 처해지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감옥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인생의 마이너스라는 일반적 통념을 깨기 위해 나름 솔선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회기도와 독서, 운동 등으로 '지금 현재 온몸을 던져 살지 않으면, 또 다시 이 시간은 오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촌음도 헛되지 않게 내실 있게 보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내 잘못에 대한 빚 갚음이다.'라는 저의 다짐이고 믿음입니다. 법적 책임을 다하는 그 날까지 스스로를 엄격하게 살피고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 어느 책에서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소서.'라는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문 구절을 보았습니다. 저의 가슴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몇 번을 읽고 또 되내이면서 저도 앞으로 이런 거룩한 마음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경쟁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치열해, 삭막한 인간 세상에서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곰곰이 반추해 보았습니다. 1981년도에 소위로 임관되어 강원도, 경기도 전방 비무장지대(DMZ)에서 소대장, 중대장을 마치고, 두만강, 압록강을 연하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수십여 회의 임무수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 없이 많은 야근을 하고, 퇴근할 때에는 불평불만보다는 뿌듯한 보람과 희열을 느끼면서 열정적으로 근무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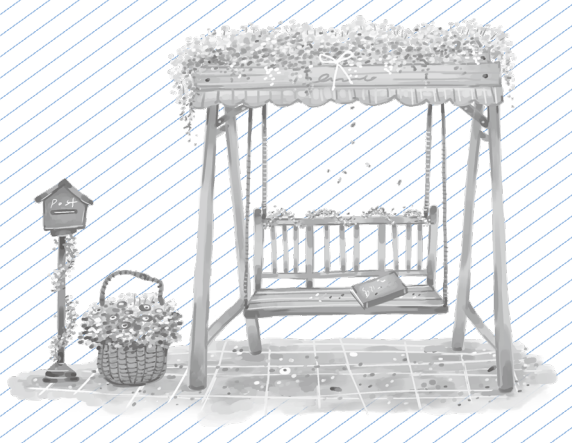
그러나 영광의 시간은 순간이었고, 번민과 고통, 아쉬움 투성이었습니다. 그래도 돌부리 많고 곳곳에 웅덩이가 잠복해 있는 험한 인생길을 잘 헤쳐 나갔는데, 정년퇴임을 목전에 두고 늪이 있는 큰 함정에 빠져 한 인간, 한 가정의 미래까지도 처절하게 파멸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제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거듭 반성하고 참회중입니다.

출소하게 되면 건강한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를 위해, 미력이나마 더욱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봉헌하고자 다짐합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속죄의 길이라고 감히 소원하고, 기대해 봅니다. 신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작품평 : 도대체 왜 그런 일을! 38년간 군에서 쌓은 명예를 송두리째 날리는 일을! 같이 근무하다가 먼저 퇴직한 선배의 잘못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군사기밀보호법을 어겼나 봅니다. 연금과 훈장 등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영어의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할 수 없으므로 남은 생만을 생각하십시오. 조국이 그대의 일신우일신하는 행동을 보고 용서해줄 날이 오겠지요.

용서를 구합니다



송창민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36세 송창민입니다.

이곳 교도소에 라디오 방송을 듣던 중 하늘에 계신 부모님과 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제가 36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늦은 후회와 반성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은 저의 어릴 적 12살 때에 하늘로 가셨습니다. 제가 부모님 살아생전에 말썽을 부리고 사고를 안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 당시에 부모님께 '왜 그랬을까? 왜 못되게 굴었을까?' 지금도 후회와 용서를 부모님께 구합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좋은 아들이 아니었고 불효의 아들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눈을 편히 못 감고 하늘에 가신 부모님에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정중히 사죄를 구합니다.

제 어릴 적 당시에 맨날 가출과 나쁜 행동을 하며 부모님을 욕보이게 했었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가출을 해서 집에 들어온 후 방안에는 촛불과 함께 어머님께서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어져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눈에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묻자 방안에 들어와 이불을 내려 보라며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방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말대로 이불을 내리고 누워 계신 어머님 얼굴을 본 후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엄마 눈을 감겨드리라고 저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아버지 말대로 제가 어머니 얼굴에 손을 대자 저의 손에 어머니 얼굴과 차가운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겨 드린 후 꼭 어머니께서 자고 있는 것 같아 어머니를 깨우며 일어나실 것 같아 보였습니다. 계속 저는 아버지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몇 시간째 울고 있었습니다. 다 울고 난 후 어머니 발밑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의 입관을 한 후 하루를 지나 출상을 하였고 부산 ○○공원에 모셨습니다.

그런 후 한 달이 지나 아버지께서도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치료를 거부를 하시고 퇴원 후 며칠 지나 아버지도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입관을 하고 그날 저녁에 마지막 옆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며 잠을 청하였고 그날 지나 아침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보내 드렸습니다. 부모님에게 송구스럽고 이렇게 후회를 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사죄를 구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늦은 후회를 하며 자책하고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저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낳아주시고 잘 키워 주셔서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늘에서도 부디 아프시지 마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더욱 밤에 부모님 생각이 자주 나고 혼자서 이불속에서 눈물을 조금씩 소리 없이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머리를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어떤 말로도 타당할 수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합니다. 차가운 바닥과 창문에 창살을 마주하며, 무거운 저의 죄책감으로 하루마다 속죄로 시간을 보내며 가슴 깊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저의 제일 소중한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를 지어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왔습니다. 딸아이에게 제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전해야 할지 제 머릿속이 지우개처럼 싹 지워져 버렸습니다.

가족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렇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가게 된다면 가족에게 더 이상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겠으며 술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마음의 사죄를 구합니다.

가족을 위해 이 한 몸이 희생정신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저의 진심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작품평 : 열두 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말았으니 그 뒤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부모님 살아생전에도 사고를 많이 쳤다고 했는데 그 뒤로도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일을 했나 봅니다. 딸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아빠가 한 순간의 실수로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지금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 고맙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토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창 나이이니 딸과 함께 할 아주 밝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매일 다짐하길 바랍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김재홍

저는 현재 ○○구치소에서 작년 11월부터 수감생활중인 김재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유포 죄로 1심 징역5년을 구형받고 2주 뒤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년 저는 육군 만기 전역 후 다시 복학 하였습니다. 복학 후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쳐 들었습니다. 취업 걱정과 학비 부담, 학교생활, 학교성적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이 많았던 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간고사도 공부를 열심히 한 것에 비해 너무나 암담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과 제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심해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이름난 인서울 대학에 진학하여 고등학교 때 공부 했던 대로 하면 될 줄 알았지만 저의 동기들을 포함한 경쟁자들은 더 열심히 하였고 저는 공부를 해도 실력은 안는다며 제 자신을 자책하며 제가 만든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도중 헤어진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서 성희롱과 욕설을 하며 비웃는 조롱의 문자 메시지와 카톡을 자주 받게 되었고 상태는 더 악화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하여 쉬면서 공부도 할 겸 '19년도에 1년간 휴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등록금도 벌고 사회생활도 할 겸 대형마트에서 관리자로 일해 보기도 하고, 도서관 사서, IT중소기업에서 전공을 살려 인턴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집에서 긴급체포 전까지 하루에 음식점 3곳에서 일도 하며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저는 휴학 후 지속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투약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나아졌다고 잘못 판단하여 단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단약하던 도중 저에게 조롱하고 비웃었던 피해자가 생각났고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몰래 호기심으로 찍었던 사진 여러 장을 슬라이드 쇼로 영상을 만들어 웹사이트에 유포하였습니다.

단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피해자님께 피해와 고통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빚어진 디지털 성범죄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며 무서운 범죄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은 성적, 호기심 상대가 아닌 소중한 인격체라는 것을 명심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왜 그때의 저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때의 저로 되돌아가 제 자신을 꾸짖고 혼내고 싶습니다.

밖에는 벌써 벚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계절이 변해 가면서 이곳 구치소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동안의 저는 한층 성숙한 것 같습니다.

밖에서의 일상의 소중함, 공동체 의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 뒤늦게나마 느낀 효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는 죄를 짓지도 지을 기회조차도 멀리할 것을 가슴깊이 뼈



용서를 구합니다

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못난 놈 뒷바라지 해주시고 저를 위해 마지막 하나까지라도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홀어머리를 봐서라도 깊이 반성하고 개과천선해서 새로운 삶,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출정을 나가면 교정버스 창밖의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제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 각자만의 아픔과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타인의 슬픔과 아픔을 경시하지도, 제 슬픔과 아픔을 특별히 생각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지내야 됨을 느꼈습니다.

피해자님께서 받으셨을 수치심과 두려움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남은 삶 평생 반성하며 착하고 바르게 살겠으며 피해자님께 염치없지만 너그러운 용서를 빕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작품평 : 만기 제대 후 복학을 했다면 열심히 공부해 사회인이 될 채비를 해야 할 때인데 왜 성폭력특례법 위반과 유포 죄로 구속된 신분이 되었을까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저지른 행동이 구만리 같은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하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앞으로 자신과 타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진정한 참회의 길일 것입니다.

"용서의 글"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승하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초심(初心)

정준혁

처음처럼 그때만 같아라
그대를 향했던 그 마음
조금의 더함도 덜함도 없이
처음처럼 그때만 같아라

보고만 있어도 가슴 설레이던 그 순간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순간
처음처럼 그때만 같아라

그대 손 꼭 잡은 채 어둠의 길
그 가운데 있어도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처음처럼 그때만 같아라

내 귓가에 속삭이던 그대 목소리
아침이면 사라질까 아쉬워하던
처음처럼 그때만 같아라

처음처럼 그때만 같아라

작품평 : 지키기 어려운 마음을 다잡기 위해 자꾸만 읽게 되는 시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는 마음이 우릴 얼마나 멀리 우리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데려왔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영원한 건 없는 걸까 생각하게 합니다.



볼펜, 너는 나의 벗

채규철

너, 여러모로 쓸모 있는 활약,
내가 아무려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방 안에서 정감어린 편지를 쓸 때는,
인라인 타듯 자유자재로 미끄러지는
너의 날렵한 움직임들 하나하나에
아름다운 사연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누나.

공장에서 종이가방을 합본할 때도,
양면테이프 껍질제거 현장에 출동해
너의 늘씬한 다리를 쓰윽 들이밀면
테이프 거죽껍질이 쓱싹쓱싹 제거되누나.

어쩌다 등이 근질근질 간지러울 때,
내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외진 곳까지
너의 손길은 족히 제대로 파고드니
살랑살랑 시원한 등긁개의 으뜸이로구나.

가끔씩 오늘 하루 일진이 궁금할 때,
육면체 주사위 꼴의 네가 몸소 굴러서
그 날의 운세를 실컷 펼쳐 보여주니
구태여 아등바등 엉뚱한 일이란 없겠구나.

너, 아낌없이 발휘하는 재주,
네 능력의 끝은 대체 어디까지이더냐?

작품평 : 볼펜 하나에도 이렇게 다양한 쓸모가 있습니다. 주변의 흔한 사물들이 문득 다시 의미 있는 무언가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다시 바라봐주는 시선이 좋습니다. 쓸모는 볼펜과 같은 사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자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볼펜 심지 속에 얼마나 많은 문장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부유(富裕)

정정식

보리밭 위로 나비의 왕진 가방이 뒹굴었다
옥상에는 노랑 물탱크를 암자처럼 올려놓았다
뒤뜰은 노랑으로 새어나와 초록으로 이어졌다
곡괭이는 돌멩이 옆구리를 뒤적거리고
소 발자국은 근처 홀씨를 건드리고
팔베개를 한 바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사과나무 집의 나무는 빛으로 얽히고 늙어가고
바지를 걷어 올린 나무에서 나머지 힘이 새어나왔다
노랑나비는 묘지에서 새 깃발을 흔들었다.



작품평 : 무의식의 세계는 언어로 설명하기 곤란해서 비논리적인 이미지들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홀씨를 건드리는 발자국, 사과나무 집의 나무가 빛으로 얽히며 늙어가고, 그 나무에서 어떤 힘이 새어나오고…. 이런 표현들은 다양한 각도의 호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세계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시의 '낯설게 하기'를 잘 살려낸 시편입니다.

꽃길

이종수

빛이 난다
저 꽃의 빛이 눈부시다
들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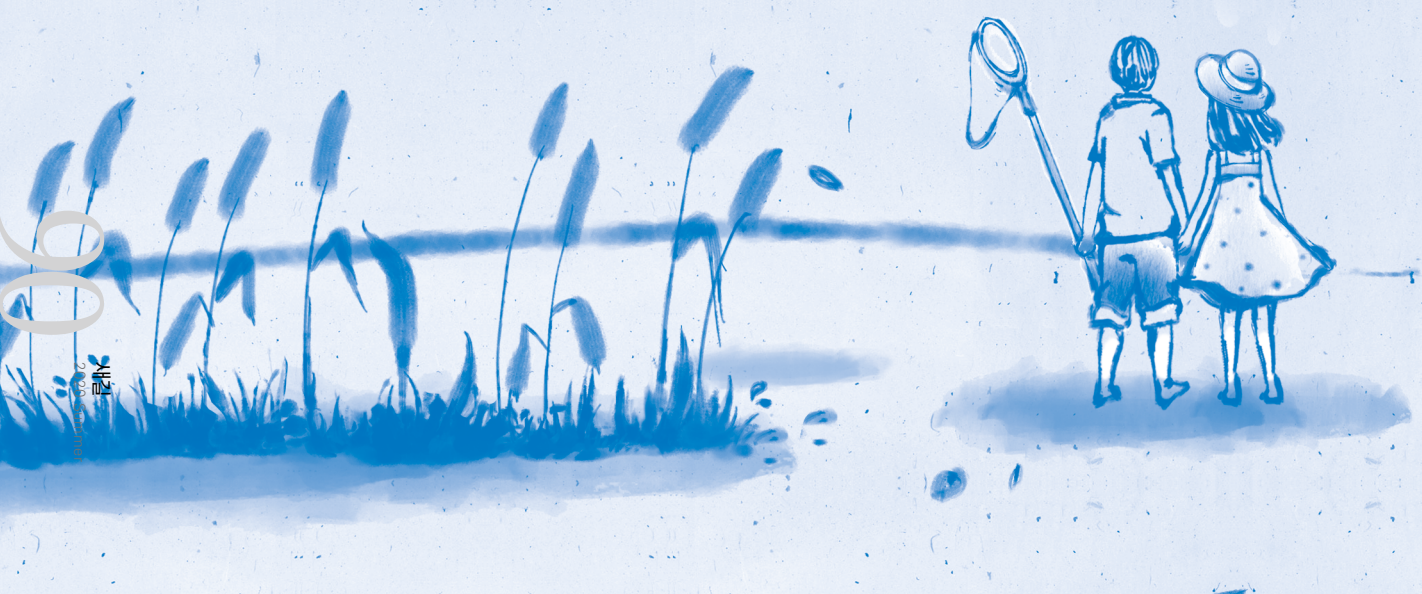
양팔을 있는데 까지 펼쳐내며
한낮의 뜨거운 햇살을 받아 들이고 있네.

한여름 밤의 시원함에 꽃잎을 닫을꺼면서
눈이 부시게 빛을 내밀고 있네.

저 들꽃처럼 나의 인생 또한 빛을 내밀려고
그 빛을 받는다.

여름밤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 시원함을 느끼며 이 뜨거운 빛의 실현을
견디며 이 빛을 받으리라.

작품평 : 모든 것이 자신 안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겠지요. 자신을 밖으로 내민다는 것, 그러려면 먼저 받아들여한다는 것. 이해와 용서와 화해가 아니면 타인뿐 아니라 자신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겠지요. 나는 어떤 빛깔로 빛나고 있는지 걷고 있는 꽃길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하게 하는 시편입니다.



시

달빛조각사

정욱진

술래잡기를 하다 하나둘 엄마의 손에 이끌려
저녁밥을 먹으로 간다.
언제쯤 불릴까 나의 이름은…….
꼭 우리 엄마가 아니어도 좋으니
그 따끈한 이름 불리어 보고 싶다.

배가 고파
배가 아픈 건지 배가 고픈 건지
골목길 창틀 넘어 들려오는 저녁 식사의 향연이 주린 배를
두들긴다.

밤하늘 보다 더 깜깜한 집
어느 날부턴가 기능을 잃은 부엌의 연장들
여기저기 대자로 누운 두꺼비의 빈병, 탈색된 폐지처럼 색 바랜
김치가 내게 손짓하고 물에 담긴 누런 찬밥, 잠들어있는 아빠의
황달 든 얼굴을 닮았다.

마루에 걸터앉은 달빛조각사 엄마 엄마 소리 내어 불러 보지만
카스테라처럼 먹음직스런 달빛만이 내게 인사한다.

작품평 : 시에서 제목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차올랐다가 기울기를 반복하는 달. 달을 깍는 조각사가 있다니, 제목이 참 좋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달의 모양을 다듬듯 어릴 적 엄마를 향한 그리움이 잘 다가옵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이상한 배고픔을 채워주는 카스테라 달빛. 다정하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같습니다.

추억

지창훈

내가 살아온 날들 중
아련하고 그리운 이야기

아빠와 형과 손잡고
목욕탕엘 갔다가
단지 바나나우유와
자장면 먹으러 간 기억

한 여름 빨간 고무대야에
장난감과 고무공 넣고
퐁당퐁당 물장구치던 기억

처음으로 갈비찜 잡채
부모님 생신상 챙기고
쑥스러워 서로 데면하게
먹기만 했었던 기억

아! 꿈같은 그리움이여
아련하게 꿈처럼 떠나간
기억의 조각배여

그렇구나!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과거의 기억들이지만
나의 가족과, 아이들과
새롭게 꿈을 꿔야지

내가 살아갈 날들 중
기대되고 꿈같을 이야기.



작품평 : 그리움이 이리도 선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그리운 기억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가족들이 있어 우린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중한 마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을 잘 살아야 오는 것이란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시"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신정민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를 읽고

박승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며 또 내일은 어떻게 변해갈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살이에 이 작은 생명을 이어가려는 발버둥이 무척이나 우리들의 존재의미를 무가치 하게함을 떨리는 가슴으로 느껴본다.

어떻게 하던, 남보다 더 성공하고 싶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휘말려 가장 소중히 존재되어야 할 '진실과 정의의 가치'가 결여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횟수를 더해 생각해 본다….

사업실패로 총 3년 6월을 선고받고 3년째 복역 중인 이 못난 죄인을 수발 하느라 아파트 입구에서 노상채소장사를 하시는 팔순 노모를 생각하며 새길지에 독후감을 제출합니다. 또한 많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참외와 반성,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한비야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를 읽고 너무나 많은 감동과 심장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자기 혼자만의 삶도 살아내기가 이렇게 힘들고 버거운데 남을 위해 살아가다니….

더군다나 험한 오지에서 숱한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위협받는 것도 도외시한 채 타인의 생명과 구호를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오직 내 한 몸 간수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떵떵거리며 잘살겠다는

욕심으로 남이야 어찌되던 말든 그렇게 살아온 내 자신의 과거가 참으로 부끄럽고 민낯을 드러낸 것처럼 창피하게만 느껴진다.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한계와 틀 안에서만 살 수가 없다. 안전하고 먹이도 주고 사람들이 가끔씩 쳐다보며 예쁘다고 하는 새장속의 삶, 경계선이 분명한 지도안에서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는 자유를 위해서라면 새장 밖으로, 지도 밖으로 나갈 것이다.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작가의 이 물음에 나는 한참 동안이나 심장이 내려앉는 듯 한 큰 충격을 받았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나에게 묻고 또 묻는다. 성공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소중한 가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끼쳤으며 결국은 죄까지 짓고 이렇게 구속되었다.

지난날의 잘못된 삶이 부끄러운 과거가 부메랑이 되어 가슴을 치며 통한의 눈물을 짓게 한다.

온통 후회로 점철된 내 인생이 앞으로는 바뀌 수 있을까? 그래서 팔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을까? 소중한 가족과 행복할 수 있을까? 아직도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두렵기만 하지만 작가의 이 물음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 싶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가벼운 바람에도 성난 불꽃처럼 타오르는 내 열정의 정체는 무엇인가?

소진하고 소진했을 지라도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기꺼이 쏟고 싶은 그 일은 무엇인가?

작가는 지금도 여전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네팔, 팔레스타인 가좌지구, 인도네시아 등 세상의 오지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긴급구호활동을 하고 있다. 작가와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찬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의 내 삶속에서는 이처럼 대단한 봉사활동은 하기 어렵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싶다. 그리하여 소중한 가족과 소소한 일상에 행복을 느끼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보고 싶다.

한비야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를 읽고 다시 한 번 과거를 참회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삶속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참 된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해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와 전쟁, 재난과 기근으로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이 긴급구호활동 등으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잘못 살아온 과거를 참회하고 새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갖도록 만들어준 새길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리고 싶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새로운 삶속에서는 ‘진실과 정의의 가치’와 이사회에서 쓰임 받는 사람, 작은 일상에 행복을 느끼는 보석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작품평 :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라는 말에서 코로나19 사태에 위험을 무릅쓰고 경계선 밖으로, 지도 밖으로 나가 헌신한 의료진이 생각납니다. 타인의 생명과 구호를 위한 봉사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지요. 가까운 곳에서도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언어의 온도」를 읽고

황우진





2018년 3월 어느 날 나는 집안공기가 서늘해지고 쓸쓸해져 서점으로 차를 운전하여 내 마음을 안정시켜 줄, 글 구경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본래 책을 읽기 시작하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행을 몇 번이고 읽고 머리맡에 두고서 읽지 않더라도 겉표지만을 보더라도 마음의 부자가 되는 걸 자주 경험을 하여서 그때의 내 마음의 생각과 맞는 책을 만나면 한권의 책을 몇 번이고 읽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글과 말에 따르는 깊이가 각각의 사람들과 사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곱거나 거친 결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읽으면 읽을수록 읽고 있는 나를 새롭게, 새로운 행복을 찾게 하고 변화하게 해준다는 만족감을 사뭇 느꼈던 책이었습니다.

이기주 작가님의 책은 내 손안에 쏙 들어오는 안정된 그립감이 사람들의 여러 말로 말속의 감정으로 품위와 언어의 포만감이, 세상 생각 많은 사람을 다른 곳에서 쉴 수 있도록 안식처의 문장을 헤엄칠 수 있도록, 한 페이지를 소중하게 읽도록 해주었습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한글 24개(자모)의 표현소리를 정교하고 따뜻한 유희로 어두워진 마음을 다시 책을 펼쳐 나를 읽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글이야 말로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지적 유산 가운데 하나"라고 극찬하였다는 해외 유명 학자의 말처럼, 그저 이 책에 실린 칭송이 아닐지도 모를 일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나의 인생 언(言)훈 책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아름답고 그래서 섬세한 언어의 예민함을 세상에 우리가 뿌려놓은 일상으로 꾸며, 책으로 소개하는 작가의 마음이야말로 행복한 언어의 온도가 아닐까 하는 감사한 박수를 보내고 싶었던 책입니다.

나는 우선, 참으로 많이 잊고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흩뿌려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상대방이나 사물들에게 감정이 없는 말을 가차 없이 하였던 적이 많았음을 「언어의 온도」 책을 읽게 되면서 진심으로 느끼고 그동안 나의 언어의 오류를 다시금 반성하게끔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민함을 가진 순수함을 외면한 채, 멋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저장한 채로 토해내어 누군가를 상처준 일이, 마을을 관통한 적이 있었음을 책을 읽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만큼은 감당할 수 없는 언어를, 행복한 마음으로 소화하겠다며 책에게 조심함을 약속하던 마음이, 1년 전의 마음을 떠올려보니 약속에 불과하지 않은 나의 헛된 언어가, 책의 교훈을 활용하지 못한 채, 살아왔고 다시 이 책을 마주 하였다는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유익한 책을 읽으며 가지는 정보의 소중함을, 일상생활에서 조차 뜻있게 사용하지 못한 나로 돌아와 책을 읽은 마음을 잊어갔던 나를, 새길지에 글을 응모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1년 전 깊은 언어의 의미를 되새겨준 이기주 작가님의 「언어의 온도」 책에게 사과를 전할 수 있는 길도 없었을 꺼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듯함과 차가움의 곡선을 페이지마다 알려주었던 책을 읽었을 때의 1년 전 나와 지금의 나는 처지가 너무도 다르지만, 다시금 책을 읽고 나니 나에게 주는 감사함은 그때와 전혀 다르지 않음을 또 읽었는데도 가슴이 뭉클하게 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言)훈을 외면하고 지내고 와서, 겪고 있는 현재의 처지가 다시금 마음가짐을 되짚어 보고, 책의 목적과 결론을 새겨 수감생활을 하는 나를 바로 잡아주는 듯도 하였습니다.

목차에 소개된 각 페이지의 제목들은 내가 잊고 지낸 사람들의 상처를 돌아보게 해주었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른 이의 이야기를 열어 읽어보는 것으로, 마음속 깊이 희망의 언어를 꽃 피울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가져볼 수 있게 하였으며, 나의 주변에 일어날 법한 가슴 찡한 언어로 서술하여,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이유를 느낄 수 있게 해준 인생의 책 「언어의 온도」는 어떤 말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든 그의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 주는 애정의 온기를 알게 해준 돌아가고픈 나의 집과 같은 책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상처를 준 것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찾은 이 책이야말로 듣기 좋은 노래를 흥얼거리듯, 마음이 바닥으로 내려앉으려 할 때 마다 찾게 되던 이 책의 안락함을,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감상 글을 새길지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새길지에 이글이 소개가 된다면, 비단 이기주 작가님의 책뿐만이 아닌, 세상의 모든 언어를 적은 책이 주는 가치를 소중하게 품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젖어 읽히는 책을 많은 사람들이 소개받기를 바라봅니다.

하루하루 소리 내어 하는 말의 온기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책을 읽고 읽어가는 행복한 온도를 가질 수 있도록 매순간 진심이겠습니다.

작품평 : 책을 몇 번이고 읽는 버릇은 최고로 좋은 습관중 하나일 겁니다. 안식처의 문장에서 위로와 따뜻함이 느껴지네요. 말의 소중함과 애정의 온기도 보여줍니다. 행복의 온도를 가진 글입니다.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를 읽고

김권희



사람이 동물과 다른점은 생각을 하며 언어로 소통을 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기록하여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며 문명의 발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마다 다른 삶의 기록이 책이란 이름으로 지금의 발전을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그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수 많은 질문과 대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던지 저마다 살아 온 방법과 경험을 책으로 남기고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였기에 발전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상과 삶이 담겨 있는 책이지만 지금은 온갖 볼거리와 가벼운 오락거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입니다. 책을 읽고 읽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구요.

책이란 지혜의 보고 안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보물들의 가치를 깨닫기 힘들게 되었고 사람들은 점점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는 현실의 모습, 바로 그 현실 속에서 '책'이란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일깨워 주고있는 한 권의 책을 만나게 되어 그 가치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책은「책을 지키려는 고양이」란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책의 주인공은 나쓰키 린타로라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고서점을 운영하는 할아버지와 살면서 학교보단 서점의 책에 파묻혀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젠 서점을 정리하고 고모와 함께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됐지요.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사람의 말을 하는 고양이가 찾아오고 그 고양이와 함께 세상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책을 구하기 위한 미궁여행이 시작됩니다. 미궁에는 책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지요.

첫 번째 미궁에선 읽은 책의 숫자만으로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한 번 읽은 책은 유리상자에 가둬두고 무조건 많은 책만 읽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소년은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라도 그 책 안에 담겨 있는 진실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책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 줍니다.

두 번째 미궁에선 책은 중요한 줄거리만 알면 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유명한 책들의 줄거리만 요약하는 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쓸모 없다는 이유로 책을 잘라내고 간단한 줄거리만 가득한 책을 만들고 있었지요.

소년은 그 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베토벤의 음악을 3배속으로 아주 빠르게 재생시키고 책을 잘라내던 사람은 그것은 베토벤의 음악이 아니라며 화를 냈고 소년은 책도 그와 같다는 사실을 일깨웠습니다. 책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자의적 판단으로 모든 것을 잘라내며 요약하고 있는 것과 베토벤의 음악을 빠른 속도로 듣는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궁에서는 세상에 필요한 책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책만 만드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두껍고 읽기 힘든 고소설이나 철학책 같은 것은 사람들의 찾지 않으니 필요없는 책이므로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가볍고 잡다한 이야기들의 책만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년은 그 사람에게 세상에 꼭 필요한 책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도 그 책들이 존재함으로 사람들에게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며 생각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외면 당해 상처받은 오래 된 책을 만나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증오를 없애주며 책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책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마음, 그것을 가르쳐 주는게 바로 책의 힘이다.'라는 사실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이기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이타심이 있기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이타심을 바르게 가르쳐 주며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책'의 역할이란 사실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 살아본 적 없는 다른 사람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읽으며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살아 온 삶의 기록의 책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화려하고 원색적인 영상은 상상력을 그 안에 함께 가둬버리지만 책은 그 안에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준비해두고 있지요. 그렇기에 영상이나 다른 것들이 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책이 나오고, 그 책을 통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 갈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는 책. 저도 책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어리석은 욕심에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 잘못의 댓가로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되었지만 좋은 책을 통하여 제 어리석은 잘못을 깨닫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으며 저만 알았던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던지고 '이타심'을 심으며 남은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책이 주는 힘, 그것은 책을 읽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찾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보물이란 사실을 알았기에 그 귀한 보물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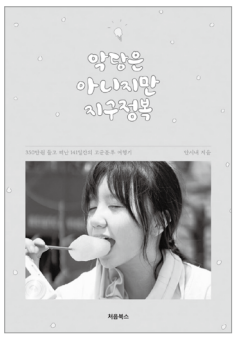
책은 그 가치만으로도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작품평 : 한 사람과 한 마리 고양이가 전하는 미궁여행이 결코 가볍지 않은 소설이네요. 책을 사라지게 만드는 미궁들이 정리되어 역으로 어떻게 하면 책을 지킬 수 있는지 또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알려주는군요. 책에 대해 다시 깊게 생각해보게 되네요.

「악당은 아니지만 지구정복」을 읽고

전광재





노동조합 활동으로 노동쟁의 과정에서 노·사 충돌로 몇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1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교도소에서 항소하여 2심을 기다리고 있다.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지만 다행이나마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중에 하나가 책읽기이다. 사동복도에서 다수의 책이 있으나 마땅한 읽을거리가 없던 중 이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관련 책은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 책을 읽고 먼저 그이의 무사귀국을 안도하며 다음 여행은 어디로 갔는지? 어떠했는지 무척이나 궁금해진다. 내 생각과 그이의 생각이 일치했다면 반대편 땅, 안데스의 고장, 남미를 여행하지 않았나 한다.

그이는 용감했고 씩씩했다. 그리고 멋지다. 그러고 보니 우리 딸과 동갑(여행당시나이)이다. 우리 딸은 대학시적 학교행사로 중국 어느 지역을 4일 갔다 온 게 해외여행의 전부다. 현재는 집을 떠나 서울 홍대입구 쯤 미용관계업에 종사하고 있다. 지구 정복한 그이와 우리 딸은 같은 지방출신이다.

나는 책을 읽을 때(많이 읽지는 않는다.) 표지와 끝장 그리고 출판이력과 지은이에 대하여

꼼꼼히 챙겨본 후 읽기 시작한다.

같은 고장 출신임을 확인하고 친근함이 다가왔고 표지사진을 보고는 더 친근해질 것 같았다. 너무 순수하고 천진난만함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사진이다.

먼저 이 책을 읽은 이로부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과 이 여행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들었고 나는 읽었다. 거기에 스무 두 살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혼자 141일간 세계여행이 아무 탈 없이 가능한지에 대해도 의심을 가졌다.

사실 나도 아무 일(?)없이 이런 조건의 여행자가 무사히 세계여행. 그것도 인도나 모로코 같은 저개발국과 치안이 불안한 나라를 여행한다는 것이 자못 걱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이는 용케도 141일간 무탈(내용을 보면 많은 일들을 겪는다)하게 많은 지역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기억을 가진 것에 대하여 다행이라 여긴다.

'스물두 살' 어렵게 마련한 거금 '350만원'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인도, 아프리카 모로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다시 이집트, 태국을 혼자(가끔씩 여행친구와 동행도 함)여행한 것에 경이를 표하고 싶다.

아마,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긴 여정을 위한 디딤돌로 보이며 여행의 실제는 인도와 모로코로 보인다. 그이는 대부분의 여행자가 가는 유명관광지나 풍경, 장소를 찾고 사진 찍고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자신을 돌아보는 여정과 여행을 한 것이다.

싸구려 숙박과 허접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맨발의 아이들에게 한 끼 밥을 먹이고 작은 동양여성에게 접근했던 여러 명의 남성을 의심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가난한 여행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는 장사꾼들에게도 연민을 느끼는 여행자이다.

그이는 여행 출발 전 온갖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여 비행기 삭을 최저비용으로 충당하고 카우치서핑(www.couchsurfing.org)을 이용해서 모로코와 유럽에서 '0'원 이라는 경이적인 숙박비용을 마련한다.

물론 나는 현재 이러한 '카우치서핑'에 대하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직 유익한 여행방법인 것만은 확실하다.

여행에서 또 하나의 묘미는 친구다. 바로 여행에서 만나는 '여행친구' 그이는 현지 여행친구와 또 다른 자신과 비슷한 세계 각국의 여행 떠돌이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하기도 했다. 특히 같은 나라 사람을 만나면 더욱 반갑고 기쁘기도 한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자신보다 더 어리고 더 오래 더 멀리 여행하는 여행친구와 함께해서 더 좋다고 한다. 특히, 이집트의 다합에서의 숙소에서 전범기를 발견하고는 끝내 항의를 하고 다시 사용하지 말 것을 다짐 받기도 한다.

이 봉기, 이 애국심, 나라사랑이 따로 있나, 그이는 여행에서 만난 인연을 소중히 하고 지금은 인터넷으로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인도 여행에서 만난 가난한 석공의 아들 다섯 살 '싸마디' 소식을 또 다른 우마디푸르의 여행자에게서 전해보고 있다.

여행과 인연은 불가분이다. 어쩌면 인연을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아이 또 다른 인연이 기다려지는 게 그래서 일까?
언젠가(내 아이 오십) 혼자는 아니여도 내 딸과 그이가 다녀온 여행지 중 한곳이라도 다녀오면 좋겠다.

여행을 고민하는 이들이 가볍게 읽어 쓸 수 있는 책이다.
그이의 말처럼 굳이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많은 돈이 들지 않아도 떠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글이다.

작품평 : 여행을 통해 얻은 즐거움은 행복을 정복한 것 같은 느낌이라지요. 딸과 동갑인 저자의 141일간 고군분투 여행기에서 딸이 많이 생각나셨군요. 딸과 함께 저자가 여행한 모로코에 다녀오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48분 기적의 독서법」을 읽고

구철규





Ⅰ. 들어가는 말

우연한 기회에 기적의 독서법을 접하게 되었어요. 왜 '48분'인가에 호기심이 발동했고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지루함을 달래보려고 책을 펼쳐보는데요. '독서법'이라는 제목이 식상해서 지나칠 번 하였지요.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행운아가 된 기분이네요.

따분하고 피상적인 독서의 요령이 아니라 독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요. 독서의 효능을 확실하게 보여 주었어요. 책에 미쳐본 경험이 없는 자는 정치, 경제, 문학을 통틀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자 김병완은 직업 선호도 1위인 대기업에서 10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제2인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무작정 도서관을 찾았다는 고백에 '용기의 사람'이라 지칭하고 싶네요. 도서관 문 여는 시간부터 문 닫는 시간까지 책에 빠져 살았는데요. 어느 때는 엉덩이에 피가 나서 도서관 의자에 옷이 눌러 붙은 것도 모르고 책을 읽었다하니 목숨 걸고 책을 읽었다는 사실에 무한한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한 권의 책을 읽는데 1~2주가 소요되었지만 닥치는 대로 읽다보니 기량이 향상되어

하루 10권의 책을 읽을 수 있었고, 1년에 3,000권의 책을 읽었다 하니 '불가능은 없다'는 나폴레옹의 말이 생각나네요. 그 결과 사고의 폭이 넓어졌고 자신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였으니 '마법의 독서법'이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Ⅱ. 48분 기적의 독서법(요약)

기획재정부 조사에 의하면 2040년이면 한국인 평균수명이 90세가 된다고 하네요. 1세기 전만해도 선진국의 평균수명이 47세였고 한국인의 수명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니 미루어 짐작이 가네요. 아마도 100년 전보다 약 2배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니 실속 있는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90년 인생 중 3년만 책에 미쳐보라는 저자의 권유인데요. 3년 동안 1,0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원리가 '48분의 기적의 독서법'이고요. 책의 세계로 빠질 수 있게 하는 최상의 프로젝트이지요. 그 시너지 효과는 한 권의 대단한 위력이 1,000권으로 융합되고 통합된다면 변화된 자신을 몸소 느낄 수 있게 되었지요. 3년간 이뤄지는 48분의 집중적인 독서는 가장 짧은 시간에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인생 중 가장 커다란 경험이 될 거예요. 할애하는 시간은 오전 12시간 중 자투리 시간 48분이고요, 오후 12시간 중 48분을 활용하자는 것이지요.

한 달 동안 책을 읽게 되면 48시간이 되고, 1년이면 576시간, 3년이면 1,728시간(103,680분)이 되지요. 한권의 책을 읽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집중적으로 읽다보면 100분이면 충분하고요. 103,680÷100분=1,036권의 책을 읽을 수 있지요. 생활에 무리없이 독서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최소의 시간, 최적의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독서법이지요.

Ⅲ. 독서 혁명가들(요약)

1. 감옥을 도서관 삼은 故김대중 대통령

프랭크 B기브니(얼어붙은 혁명의 저자)의 글을 보면 '사형선고, 암살기도, 6년간의 투옥, 거듭난 낙선 등 거의 40년에 걸친 정치적 박해를 이겨내고, 1997년 대한민국의 15대 대통령이 된 김대중의 일대기는 믿기 어려운 멜로 드라마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이 나라가 걸어온 역사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원래 책을 좋아했지만 학력 콤플렉스로 인해 더욱 독서를 가까이 하였다고 하네요. 1977년 진주교도소 시절과 1981년 청주교도소 시절에 하루에 10시간씩 독서를 하였기에 '독서의 달인', '독서광'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네요.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에는 감옥에서 4가지 즐거움을 맛보았는데 그 첫 번째가 독서의 즐거움이었다고 하네요. 철학, 신학, 정치, 경제, 역사, 문학 등 동서양에 걸쳐 읽게 되었지요.

2. 중학교 중퇴 후 도서관을 통째로 읽어치운 발명가 에디슨

에디슨은 초등학교를 입학한지 3개월만에 열등생이라는 이유로 쫓겨났지요. 교사 출신인 그의 어머니 낸시는 에디슨을 포기하지 않고 집중 독서를 시켰다 하네요.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좋은 책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읽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문학이라는 위대한 세계를 열어 주신 셈이지요. 제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답니다.'(에디슨) 2~3년 동안 도서관을 통째로 읽어 버렸는데 이로 인해 에디슨의 사고와 의식 수준은 평범한 수준을 넘어 엄청난 도약의 계기가 되었지요.

3. 왕따에서 시대의 영웅이 된 나폴레옹

어린 시절은 참담했지요. 용모나 옷차림, 태도 등에서 또래보다 많이 뒤졌고 귀족자제들은 그를 '촌뜨기, 가난뱅이, 땅딸보'라고 놀렸지요. 왕따라는 고독한 시기를 독서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헛간에 파묻혀 책에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요. 그의 어머니는 독서를 권하였으며 외로울 때는 가장 좋은 친구가 독서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법률, 경제, 문학 등에 그치지 않고 성서, 코란, 역사, 지리, 여행기, 미술, 과학 등 관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고 그의 독서량은 자신이 점령한 유럽대륙보다 넓었고 그의 지식을 바탕으로 치밀한 논쟁에도 탁월하였고 전략, 전술도 주변을 압도했다 하네요. 4주의 이집트 원정을 떠날 때는 1,000권의 책을 싣고 갔다하니 탐욕스런 독서가였지요. 그 결과 사령관이 되었고, 유럽을 정복하였고, 황제가 되었어요.

4. 학교를 그만두고 도서관에 파묻힌 중국 국부 마오쩌둥

모택동의 자서전 남종호역, 다락방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었어요.

'성립제일중학교에 입학하였는데 나는 이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교과과정이 지나치게 제한이 많았고 규정 또한 못마땅하였기 때문입니다. 입학한지 6개월 만에 나는 이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다. 대신에 매일 호남의 성립도서관에서 독서를 하였습니다. 나는 규칙적으로

매우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아침 일찍 도서관에 가서 독서를 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점심때는 떡 2개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이 닫힐 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보낸 6개월이 참으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 사상가, 군사가, 전략가로 인생의 큰 핵을 그었을 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역사 자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짧은기간 동안 폭발적이었던 독서의 효과 때문이었지요. 마오쩌둥은 장제스의 국민당에 10만리를 쫓겨 간적이 있는데 그때 그가 말라리아에 걸렸음에도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5. 수 만권의 달인 김용옥 교수

도올이란 호도 재미있다. 어원은 어려서부터 돌대가리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도올=돌의 음을 취하여 호로 삼았다고 한다. 대학입학 얼마 후 악성 관절염에 걸려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학교를 휴학한 그는 고향집에 내려와 1년 반을 아버지 병원 2층 방 한구석에서 꼼짝없이 누워 지내야 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간호사들의 주사바늘을 뺏어 자기 손으로 직접 아편을 푹푹 찔러대며 마취상태로 지낼 만큼 혹독한 통증이었다고 한다.

사람은 늘 어렵고 힘들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실패한 사람은 고난 속에 절망을 배우고 좌절한다. 도올은 힘든 시기를 독서 삼매경에 빠져서 자신의 영혼까지 살찌우는 기회로 만들어 냈다. 그는 참기 힘든 고통 속에서 병실 천장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걸이를 만들어 불교, 신유학, 한의학, 신학, 음악, 미술에 이르기까지 수천 권의 책을 읽었다. 당시 간호사를 시켜 천안에 있는 서점의 책을 코너별로 통째로 사서 모두 읽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다.

6. 3년 독서법을 실천한 CEO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24세의 나이로 허름한 창고에서 직원 2명과 함께 창업한 재일교포 일본인 사업가고요 사업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장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경고를 들으며 어쩔 수 없이 병실로 가야만 했지요. 1983년 B형 간염으로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병실에 입원한 상태로 3년 넘게 병마와 싸웠는데요. 입원하고 있는 동안 4,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하네요.

29세인 1986년 5월 완치되어 사장직에 복귀한 후에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되는데 3년 집중

독서가 의식과 사고수준의 비약적인 도약을 이루어 소프트뱅크를 튼튼한 토대위에 올려놓게 되었지요.

Ⅳ. 나가는 말

책은 하나의 세계로써 그 세계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요. '내가 세계를 알게 된 것은 책에 의해서였다.'라는 장폴 샤르트르의 말과 같이 독서는 자기 자신의 지식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유명한 도구이며 세상과 소통하게 만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소설가 양귀자의 수필에는 '깃털 같은 눈송이도 쌓이면 지붕도 가라 앉히고 거목을 쓰러 뜨리 듯 우리의 삶은 늘 하찮은 것으로부터 커다란 것을 일궈낸다.'는 구절이 있는데 깃털보다 못한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여서 우리의 고정의식을 깨뜨리고 사고를 향상 시키는 위대한 힘이 되지요. 에디슨은 말했어요. '자신을 완성시켜라. 우리는 완성된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남의 책을 많이 읽어라. 남이 고생하여 얻은 지식을 아주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으로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저자는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한만큼 세상을 알게 된다. 책을 읽지 않고서는 사고와 의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천하에 찾을 길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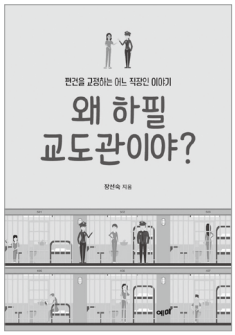
작가 이문열은 처음부터 작가가 되려는 꿈을 갖지 않았어요. 3년 동안 1,000권의 책을 읽다보니 국내 문학계의 대가로 자리 잡았고요. 워런버핏, 빌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등은 많은 독서량으로 성공을 거둔 인물이지요.

작품평 : 자투리 시간 48분을 활용하여 3년에 천여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책에 미쳐본 경험이 없는 자는 성공할 수 없다는 말도 오래 남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책에 미쳐보았군요. 우리도 한 번 미친 척하고 책에 미쳐볼까요?

「왜 하필 교도관이야?」를 읽고

안광희





「'연민'이 내 삶을 파괴하지 않을 정도로만 남을 걱정하는 기술이라면 '공감'은 내 삶을 던져 타인의 고통과 함께 하는 삶의 태도다」

수전 손택이 정의한 이 '공감'을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신문에서 30년을 교도관으로 헌신해 온 ○ ○ ○ 교감님의 글을 읽고 응원의 편지를 보내었고 답을 기다리기에는 좀 늦어진 어느 날, 반가운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래도'라는 시와 함께 그간 출판, 강의, 변경된 업무에의 적응 등으로 많이 바쁘셨다는 근황을 담아서 보내신 답서였지요. 일면식도 없는 어느 수용자의 편지에 잊지 않고 정성이 담긴 답을 주신 교감님이 30년 교도관 생활의 애환을 풀어낸 이야기는 연민과 동정을 넘어선 공감으로 살아온 한마당이었습니다.

'왜 하필 교도관이야?'라는 굵은 글씨 제목 위에 '편견을 교정하는 어느 직장인 이야기'라는 부제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자가 교정하고자 하는 편견으로부터는 11개월여의 수형생활을 통해 이미 자유해진 저로서는 저자와는 다른 부제를 붙여 이 책을 읽은 소회를 적어내려 합니다. '엄마로 살아온 어느 교도관의

30년 묵은 공감의 기록!' 가장 척박하고 어둡고 무서운 곳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으로 생각한 수용자들이 나이의 고하를 떠나 '엄마'라는 표현을 썼다고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글의 제목이 '교정은 새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입니다'인데 책의 전편에 흐르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저자는 수용자들이 부르는 표현에 걸맞는 억척스러운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이름이 여자인 듯 해보이지만 남자 수용자입니다. 저자가 여교도관이시고 감옥의 역사나 일반적인 상식에 관한 글 외에는 대부분이 여자 수용자들과의 이야기였지만 주문하여 책을 받은 날 취침 전까지 단번에 읽어낼 수 있었던 것은 성별이 다르다 해도 공감하기에 충분한 우리네 담장 안 사람들의 민낯과 속살을 가감 없이 적어낸 진솔함 때문이었습니다.

개중에는 2년6월의 형기를 마치고 가석방되어 자매결연 업체로 가던 범준이라는 소년이 음식점에서 밥을 먹다가 "주임님, 숟가락이 너무 무거워요"라는 한마디로 담장 속과 담장 밖의 온도차를 실감케 하는 가슴 짠한 남자 수용자의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법무부 사서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억울한 사건으로 한 달쯤 저자의 근무지에 머물다가 이송을 가서 낯설고 힘든 사연을 써 보낸 편지에 힘내라고 보내 준 격려의 엽서를 20년이 되도록 가지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꺼내본다는 어떤 분의 이야기는 저자가 교도관으로 살아온 날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거울이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독후감이라는 틀 속에서 글을 쓰면서 자주 저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이 책이 저자의 지식을 풀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서두에 쓴 것처럼 죄를 짓고 담장 안에 머무는 조금은 특별한 이들과의 소통에 자신의 삶을 던져 30년을 익혀온 공감의 육필 원고인 탓에 그러했나 봅니다.

수용자들에게 붕어빵을 먹이고 싶어서 외출을 나가 사온 붕어빵이 서로의 온기에 몽땅 들러붙어서 붕어빵인지 붕어죽인지 모르게 되었지만 담당 교도관의 정성을 맛있게 먹어 주었음을 회고하는 장면은 갓 구워낸 붕어빵처럼 읽는 이의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가막소'를 학교이자 문화공간이자 마을회관으로 바꿔온 사람이라는 추천사의 한마디에는 책의 전편에 흐르는 저자의 용기가 숨어 있습니다. 몇 편의 글들을 제목과 함께 기록된 속 이야기를 풀어내고 소회를 적어 보지만 제한된 지면 속에 담장 안도 삶이고 그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깊은 공감의 전부를 담아내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평등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을 삶의 주연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조연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이 지상에 귀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가장 평범한 진리를 온 몸으로 살아온, 그리고 또 살아갈 이들의 현재진행형 육필 원고들의 묶음은 담장 밖의 사람이 되더라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듬겠다는 원대한 꿈은 아닐지라도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오늘을 사는 교도관들의 이야기, 한 사람을 교화해 사회로 내보내기 위해 자신들의 자유마저 담장 밖에 영치시키고 들어와 밤낮으로 애쓰는 이들의 이야기를 일연의 삼국유사를 떠올리게 하는 장선숙의 교정야사로 엮어 낸 작품입니다.

저자에게 보낸 답장에서 할 수 있으면 독후감을 써서 새길지에 기고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느라 다 읽고서도 이 글을 마감하기까지 품고 있던 책을 내일은 훈련장 책꽂이에 꽂아 두렵니다.

무거울 줄 알았던 '가막소'이야기를 이렇게 컬러풀하고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감동의 기록이 또 다른 누군가의 가슴을 덥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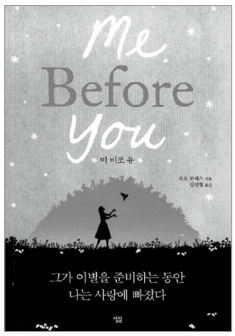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엄마의 억척과 감성으로 선명하게 살아낸 장교감님의 이야기를 여성 독자가 읽고 감회를 썼다면 보다 섬세한 감동을 담을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작품평 : 늘 함께하는 교도관의 수필이라 공감이 더 되었지요. '가막소'라는 공간에는 그곳만의 에너지가 있지요. 수용자들의 '엄마'로 30년을 살아온 교도관의 공감의 기록이라는 울림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저자에게 응원의 편지를 보내고 독후감을 써서 새길지에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me before you(미 비포 유)」를 읽고

유소피아





이 책을 읽게 된 건 처음 교도소라는 곳에 와서 모든 게 낯설고 무섭기만 했던 저에게 같은 거실 동생의 추천으로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이곳 교도소라는 곳에 있는 제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최악의 불행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인 중증장애인 윌은 한순간의 끔찍한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 환자가 되어 평생 걸을 수 없는 휠체어에 자신의 존재를 규정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고 이전의 삶은 능력 있는 사업가에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주인공 루이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자신의 꿈조차 잊고 일만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주급이 높은 간병인 일자리를 소개받게 된 루이자는 사지마비 환자인 윌을 6개월간 간병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 일하던 루이자는 윌이 6개월 뒤에는 스위스에 있는 디그니타스 병원으로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디그니타스 병원은 조건에 맞는 사람들의 자살을 돕는 병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로 루이자는 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사지마비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보고 실행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집밖으로도 나가려 하지도 않던 윌이 루이자의 끝없는 노력에 점점 변해가고 윌이 마음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 모두들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윌은 루이자에게 자신의 꿈을 찾으라며 매일 그녀를 응원했고 가족의 생활비와 학비 걱정에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도 생각할 수 없이 살아왔던 그녀는 패션에 관심을 가지고 직업훈련학교에 지원도 하며 윌과의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가고 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둘은 비행기를 타고 어느 휴양지 리조트로 떠나 아름다운 바닷가, 저녁 모닥불 앞에서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지만 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루이자로 인해 물론 삶 전체가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만하지 않다고…. 자신이 원하던 삶은 아니라면서 이제 곧 스위스로 떠난다고 하였습니다.

휠체어 이전의 삶을 사랑했던 윌은 결국 스위스로 떠나 삶을 마감하였고 루이자는 윌의 응원 덕분인지 파리에 있는 패션대학교에 합격하여 다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윌이 생전에 루이자에게 남긴 편지에는 루이자를 사랑했지만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미안함과 루이자의 꿈을 응원하며 루이자의 생활비와 학비 전액을 남기며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에서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랑했지만 새로운 사랑이 있다 해도, 또한 삶이 지금 조금은 나아졌다고 해도 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윌에게는 더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루이자도 사랑은 떠나보내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자신의 꿈을 찾고 이루는 모습을 보며 비록 지금은 죄를 짓고 철창 안에 갇혀있지만 아픈 곳 없이 건강하고 수용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루빨리 사회에 나가 나의 꿈을 이루기에 아직 시간이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철창 안에 갇혀 힘들어하고 있을 다른 수용자 분들도 이 책을 읽고 그래도 신체가 건강한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꿈을 이루기엔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가지며 올바른 수용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 봅니다.

작품평 : 살아야 할 이유와 죽어야 할 이유를 적어보면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 많아서 죽을 수 없다고 하지요. 이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찾아야할 것이 많다는 것이고요. 주인공 루이자는 찾았지만 윌은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삶이 소중한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소설입니다.

「독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를 읽고

최성우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더 없이 많은 지식을 익혀도 그것이 조금의 힘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지식이 거의 없어도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쇼펜하우어 책 본문 중).

어쩌면 이 말은 저자의 의도를 함축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교도소라는 공간이 그렇듯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제공하지만 나조차도 보면 말 그대로 지식을 채 소화하기도 전에 그냥 '욱여넣고'있는 건 아닌지 이 책을 읽으면 많은 반성이 되었고, 그런 만큼 이 책은 사람들에게 꼭 알리고 소개해야 한다는 사명감마저 들었다.

책은 제목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실제 써먹을 수 있는 '혼자 공부하는 법'에 대한 주옥같은 내용들로 가득 차있다. 경영학도 전공하지 않은 그가 실제 현장에서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컨설팅을 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조언은 힘이 실린다(참고로 저자의 전공은 철학과 미학이다).

그에 따르면 독학은 크게 전략-인풋-추상화 및 구조화-축적 4가지 단계로 이뤄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나는 책을 읽으면서 이 과정들에 대한 설명도 좋았지만 중간 중간 잠언처럼 툭툭 던지는 듯한 깊은 통찰과 대가들의 명언.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풍부한 사례소개가 더욱

마음에 와 닿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혁신가는 성공하고부터 많은 작품을 만들어 냈던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다.'**

: 피카소는 생전에 2만점의 그림을 남겼고, 에디슨은 천 건의 특허를 신청했으며, 아인슈타인은 240편 가량의 논문을 발표했지만 그 중 대부분은 학자들이 참고문헌으로도 인용하지 않는 것들이다.

② **'욕구를 동반하지 않는 공부는 오히려 기억을 해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 이는 다방면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그로서 공부의 최대 포인트는 지적욕구 즉,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든 것이다. 막연하게 그냥 책을 많이 읽으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겠지 하는 우리들의 평범한 사고방식에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다.

③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는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 미워하는 것이다.'〈데미안〉 헤르만헤세**

: 이는 독서를 할 때 강한 반감이나 혐오감이 드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를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왜 싫어하는지 자문함으로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책은 단지 독학의 기술을 가르쳐 주기보다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 내용들로 우리의 내면을 일깨워 주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가 언급한 독학의 4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략세우기

이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는 반대로 '무엇을 배우지 않을지'를 결정한다고 한다. 즉, 단순히 '철학', '역사'식으로 한 분야를 파기보다는 본인만의 테마를 정하라는 얘기다. 예를들어 혁신이 일어나는 조직은 어떤 조직일까? 기독교는 고뇌하는 직장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 등등. 즉, 이렇게 되면 애초의 목표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신변잡기 같은 가십거리들은 멀리하게 되고 이 소중한 시간들을 자신만의 답을 찾기 위한 시간으로 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2. 인풋

저자는 '꼰대'를 지식의 업데이트에 실패한 사람들이라 표현한다. 즉 장기간에 걸쳐 '지적 전투력'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교양을 쌓아야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은 지금 가히 압도당할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다. 그리고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하나 있는데 한 심리학자(스탠퍼드대 존 크럼

볼츠 교수) 연구 결과 성공한 사람들 중 80%는 본인도 예상할 수 없었던 '우발적인 사건'을 통해 그 커리어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즉, 이는 바꿔말라면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직하게 노력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즉, 커리어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대상을 한정해 버리면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커리어의 전환점을 불러올 기회를 멀어지게 만든다고 오히려 저자는 경고를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제는 하나의 직업만으로는 생존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장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또 다른 하나는 아웃풋과 인풋의 양은 장기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찌 보면 수용자 입장에서는 더욱 중요한 부분이다. 저자는 그래서 인생에서 대량의 인풋이 가능한 시기는 다른 사람에게 아웃풋(결과물)을 요구받지 않는 시기(예: 젊은 시기)라고 하는데, 사실 이는 어찌 보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수용생활 기간이기 때문이다. 즉, 만연히 인풋(독서)에 집중하여 '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쉽게 버려지는 이 안에서의 시간이 더욱 귀하게 느껴진다. 그 외에도 '독서하면서 강한 반감이 드는 부분은 따로 메모하라', '교양을 익히는 목적이 단순히 콤플렉스를 가리려고 하는 목적은 아닌지 의심해보라' 또 '마음에서 떠오르는 질문을 제대로 잡아내는 능력이 중요하다' 등은 작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3. 추상화와 구조화

추상화는 한마디로 사소한 요소를 제거하고 핵심을 뽑아내는 것이고('요약하면 ~ 다'라고 정리하는 것) 구조화는 추상화로 생긴 가설을 다른 분야와 연결하여 보편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즉, 스티브 잡스가 추상화 작업을 통해 '디자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이를 휴대폰과 연결하여 보편성을 확인한 작업은 구조화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익히 알려진 것처럼 혁명적인 사건으로 애플이 아이폰으로 휴대전화 산업에 뛰어들자(2007년)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업해온 전문가들이 이 휴대폰 초보였던 애플에게 시장점유율이 절반을 순식간에 뺏겨 버린 사실을 우린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저자에 의하면 아인슈타인 역시 이 대담하게 가정하는 추상화 능력에 그의 천재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는 어느 순간 갑자기 얻어진 것이 아닌 서두에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무던한 반복적 경험을 통해 얻어진 양 → 질로의 극적인 전환이었던 것이다.

4. 축적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기억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애초에 책을 쓸 때 인간은

인풋 정보의 90% 이상은 망각한다는 것을 전제로 썼다고 한다. 즉 독서노트 등을 만들어 나중에 언제든지 그 책으로 돌아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메모와 본인만의 생각이나 영감 등을 적어 놓는 것만으로 족하고, 이런 지식축적이 계속 이뤄지다 보면 절대적이고 당연해 보이는 상식에 대해 상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는 창조와 혁신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든다.

'세계 탑 클래스인 운동선수와 일반인의 신체능력 차이는 기껏해야 2배 정도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힘은 축적된 양에 따라 1,000배도 가능하다. 즉 육체능력은 단련해도 2배 정도지만 창조성은 단련하면 1,000배 이상도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책 말미에는 지적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추천하는 여러 장르를 소개했는데 그 중 인상적인 제목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다.

1. 역사 : 인류의 나선형 발전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익힌다.
   (역사는 발전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다)
2. 철학 : 지금의 틀에 의문을 품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힘을 단련한다.
   (철학에는 반드시 큰 '부정'이 포함되어 있다)
3. 심리학 :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불합리성'을 깨친다.
   (인간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전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4. 문학 : 성의 있는 거짓말로 인간성을 깊이 이해한다.
   (그 지역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살아있는 인간'을 떠올린다)

즉 이는 단순 교양 차원에서 접해왔던 인문학이 실제 삶과 현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를 의미한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말도 있듯이 '목적이 이끄는 독서' 그리고 그에 따른 자기만의 추상화, 구조화 과장이 곁들여 진다면 같은 시간, 같은 책을 읽더라도 이는 소총 vs 핵무기 차이만큼이나 나의 미래 경쟁력을 배가 시켜 줄 것이다.

작품평 : 지금은 평생교육 시대고 버려진 쓰레기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지요. 그 배움은 학교라는 교육현장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고요. 삶의 현장에서 내 편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소총과 핵무기 차이만큼의 미래 경쟁력이라면 핵무기에 표를 던져야겠지요.

"독후감"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아들아!
너의 첫 번째 기회를
응원한다

이재균

여기 이곳 운동장 담장 너머에는 벚나무가 살짝 보이는데 만개한 벚꽃을 보니 '봄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세월이 흘러 벌써 네 번째 봄을 맞이했네. 참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아. 이제 두 번의 봄꽃을 더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수 있겠지! 오늘 밤은 비가 와서 그런지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라 아들에게 편지를 써.

아빠가 많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아빠의 어릴 때부터 지금 여기 교도소에 들어온 날까지의 과거를 쭉 생각해봤어. 한번 들어볼래?

전라도 ○○에서 태어나 서울로 이사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갔지.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해서 무엇을 할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1999년도에 '자동차 정비' 학원을 다녔어. 배운 것이 없으니 기술이라도 배워야 겠다는 생각에 말이야.

6개월 공부 만에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후 카센터에 취직하고, 기술을 배우고, 친구와 카센터를 창업하고 몇 달 후에 망하고, 또 다시 자동차 썬팅기술을 추가해서 취직을

하고 창업을 하기를 반복하다가 대형버스 썬팅과 정비 그리고 버스커튼까지 만드는 제조업 공장을 했었지. 그렇게 10년 가까이 밤낮으로 노력한 결과 어엿한 '사장'까지 해 보았네. 그때 자동차 정비 일을 계속 했으면 지금쯤 아빠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네.

그렇게 육체적으로 돈을 벌다가 지쳐갈 때, 몸으로 돈을 벌기 보다는 머리로 돈을 벌어야 겠다는 생각에 잘나가던 공장을 처분하고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지. 1년 동안 도서관에 들어가 노력한 결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후 부동산 사무실에 취직, 또 창업을 거쳐 부동산 경매 강사까지 승승장구 했었지.

나름 책도 쓰고, 방송에도 나가고, 스타강사가 되었는데 욕심이 화근이 되어 남의 투자금을 잘못 건드려 여기 교도소까지 들어오게 되었네. 이렇게 또 10년이란 시간이 흘러 버렸고 말이야. 만일 그때 남의 투자금을 안 건드리고 계속 부동산 일을 하고 있었으면 아빠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정말 엊그제 같은 수많은 일들이었는데, 벌써 10년, 20년 전의 일이라니 정말 인생은 화살과 같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제 여기서 나가면 아빠 나이가 50살에 가까운 나이네. 마음은 아직 30대 청춘인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어떤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꿈은 10대만 꾸는 것이 아니라고.' 아빠도 요즘 새로운 꿈을 꿔.

옛말에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하잖아. 젊은 시절에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는데 이렇게 오늘밤 아빠의 과거 기억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그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아. '자동차정비자격증'을 취득해서 자동차 관련 일을 했던 것이 첫 번째 기회였던 것 같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동산 경매 강사 일을 했던 것이 두 번째 기회였다는 것을 알겠더라고.

아빠는 여기 ○○훈련교도소에서 2년 가까이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있단다. 이곳에서 배우고 취득한 자격증으로 또 다른 10년을 살겠지.

'마지막 세 번째의 기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꼭 성공해야지'라는 꿈을 꿔.

올해 우리 멋진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했잖아. 아들도 이제 아빠처럼 조만간 첫 번째 인생의 기회가 올 거야.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아빠처럼 실패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그 기회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너의 인생에 큰 결과물을 얻기를 바래.

그 결과물이 꼭 돈을 말하는 것은 아니야.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훗날 후회 없이 보냈다면 그것으로 큰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아들!
우리 이제 아빠의 3번째 기회와 아들의 첫 번째 기회를 잘 준비해서 멋지게 만나자. 그래서 남은 인생은 조금 더 행복하게 살자.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 그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파이팅 하자.

사랑한다. 내 아들.

작품평 : 아빠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반성과 아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전하는 따뜻하고 용기있는 편지입니다. 아빠의 세 번째 기회와 아들의 첫 번째 기회가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준비된 기회는 멋진 결과를 가져다 줄 거예요.

"서간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새길 봄호를 읽고

홍순창

작품평

새길 감상문을 읽으며 삽화(일러스트)에 관심 준 글은 처음 같아요. 표지 그림에 대한 글들은 많았지만 내용에 어울리는 삽화까지 언급하지는 않았었지요. 세심한 시선에 봄호를 다시 펼쳐보게 되네요. 무심결에 지나쳤지만 삽화가 있어 지루하지 않고 내용 전달도 빨랐어요. 글꼴에 대한 무게감도 있고 새길은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이번 봄에도 새길지는 어김없이 제게 바뀐 계절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노란 개나리가 만발한 봄호 표지에서는 봄내음이 물씬 느껴져서 더욱 좋았습니다. 제가 돌이킬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새길지와 함께한지 12년째입니다. 매 계절 저는 새길지를 기다리는데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센스와 위트가 담긴 일러스트(삽화)입니다. 새길 표지를 비롯한 본문 속 다양한 삽화들은 아무그림이나 채워 놓은 것이 아니라 한컷한컷 세심한 배려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알고보면 더욱 재미있는 새길 속 삽화를 통한 저만의 새길 감상법을 부족하나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분은 공감해 주시고 잘 몰랐던 분들은 앞으로 새길속 삽화에 좀더 관심을 가지면 더욱 흥미롭게 새길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새길은 계절을 배달해 줍니다. 분기별로 각 계절의 특징을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매우 적절하게 표현해 내는데 담장 안에서는 쉽게 느끼기 힘든 계절의 역동적인 모습을 눈으로 즐기게 해 줍니다. 15척 담장을 생각하면 무채색의 건조함이 마음을 삭막하게 하는데 새길의 표지를 보고 있으면 제 마음속의 색상이 한층 다채로워 짐을 느낍니다.

이번 봄호의 표지는 겨우내 얼었던 제 마음을 노랗게 물들여 주는 것 같아 더욱 좋았습니다. 사진 찍는 연인과 그 주위를



나비처럼 훨훨날며 노니는 개나리 꽃은 저로 하여금 봄의 한가운데로 초대해 주는것만 같았습니다.

이렇듯 새길은 매번 표지 구성과 색상을 통해 각 계절을 실감나게 전달해 줍니다.

둘째, 새길은 잃었던 동심을 찾아 줍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어른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어른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몇 개의 구슬 그리고 종이 딱지만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것처럼 의기양양해 하던 넓은 마음은 어디로가고 채워도 채워도 만족을 모르는 블랙홀 같이 좁고 검은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아마 보고 듣는것에 있어 너무 세속적으로 물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새길을 보면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새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어릴적 기억이 곧잘 떠오르는데 마치 어릴적 동심의 세계로 시간 여행을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봄호의 표지 가운데 그려진 문도 제게는 평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희망으로 통하는 비밀 문처럼 뭔지 모르게 설램을 가져다 주었지요.

본문 10페이지의 새싹을 들고 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소녀, 28페이지 속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소녀와 꽃 대신 하트가 피어있는 것도 제 마음의 시계를 과거로 돌려 주었습니다. 103페이지의 책이 열려 있는 나무와 115페이지의 사랑을 요리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는 그 아이디어에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각 페이지를 수놓은 배경과 사진 그리고 다양한 삽화들은 저로 하여금 잊고 있던 동심의 감수성을 조금씩



되찾아 주는것만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센스있는 새길속 삽화는 보는 것만으로도 적잖은 위로와 심적 치료를 해주기도 합니다.

셋째, 새길속 삽화는 글과 조화롭습니다. 새길의 각 꼭지를 이루는 글에는 늘 그에 걸맞는 삽화가 함께 합니다. 때로는 글을 읽지 않아도 글쓴이의 감성과 의도를 짐작할 수 있을만큼 주제를 절묘하게 형상화된 삽화를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11페이지의 바다와 등대 그리고 벚꽃 그림은 그 자체만으로도 제게 깊은 감동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새길속 글과 그림은 그렇게 멋진 한팀이 되어 글쓴이의 생각과 감성을 더욱 잘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삽화와 함께 글을 읽어 나가면 글에 대한 이해도나 공감도가 한층 높아집니다.

이번 봄호 삽화 가운데 제 마음속 으뜸은 45페이지 '새로운길'이라는 글의 삽화입니다. 수묵화 같은 느낌의 간단해 보이는 삽화인데 보면 볼수록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놀라운 작품이지요. 두사람이 떨어져 길을 걷는 단순한 그림 같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그림은 다양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글은 '나를 위한 길이 곧 타인을 위한 길이 되고 타인을 위한 길이 곧 나를 위한 길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글쓴이가 운동장의 돌과 잡초를 치우는 봉사를 하며 느낀점을 쓴 글입니다. 그림속 두 사람중 앞서 걷는 사람을 잘보면 등에 배낭을 메고 있는 듯 하고 뒷사람 보다는 허리도 굽은 것 같아 보입니다. 앞서 가는 이의 등짐에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저는 앞서 가는 사람이 뒷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돌맹이를 치워 배낭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앞서 가는 사람은 몸은 고될지라도 마음만은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앞서가는 사람은 뒤를 따라가는 사람의 부모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단지 검은색으로 작게 사람의 형태만 그렸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디테일을 살릴수 있는지 몇 번이나 감탄을 하게 된

삽화였습니다.

이렇듯 새길속 삽화는 보는 시각에 따라 잠자고 있는 많은 상상력을 깨어나게 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더 덧붙이자면 새길을 보는데 있어 또 하나의 숨겨진 디테일이 있습니다. 바로 각 꼭지의 제목을 표현하는 글꼴(서체)입니다. 아무렇게나 글꼴을 선택한 것 같지만 이역시 잘 들여다보면 각 글의 주제와 무게감에 따라 적절한 서체를 사용 했음을 느낄수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감독이 디테일을 잘 살려 화제가 많이 되었는데 제가 볼때는 새길지의 디테일 또한 그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점을 넓히고 마음의 문을 열면 같은책 안에서 더욱 많은 감동과 재미를 얻을수 있습니다.

'희망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새길지가 우리에게 이끌어 내고자 하는 노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수고와 노력에 제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렸다고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지면을 빌어 매번 센스 넘치는 예쁜 삽화를 그려 주시는 이름모를 삽화가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느 예술 거장의 작품도 열지못한 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새길지를 꾸미는 위트 넘치는 그림을 감상하며 더욱 많은 감동을 얻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길 봄호를 읽고

김종수

노란 개나리꽃으로 온통 겉표지를 장식한 새길 봄호가 나왔다. 뒷산 언덕에 활짝 핀 개나리가 높은 담장으로 가로막히자 나 여기 있소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옮겨온 것만 같다. 더구나 처마 밑의 자전거에는 반가운 꽃바구니가 한 아름 담겨있다. 그 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세상 속으로 훨훨 날아가라고, 내가 있을 곳은 침침한 이 곳이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밖의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나를 부르는 것만 같다.

나는 새길을 받자마자 그 날로 다 읽었다. 새길은 이 곳 수용자들의 이야기이고 이 곳의 생활이며 나의 이야기이고 외침이기도 하다.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읽고 있으면 가슴이 막 뛴다. 테마 시는 잊고 살고 있는 계절을 느끼게 하고 가족이나 친구, 학창 시절의 추억까지 아련하게 떠오르게 한다. 더구나 수필 속에 빠지면 글쓴이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웃고 울고 화내기도 하고 괜히 흥분하기도 한다. 마치 내가 겪은 일 인양 그 속에 푹 빠져든다.

그러다가 용서의 글을 읽을 때면 그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고야 만다.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닌데도 꼭 나 때문에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만 같고 나 역시 부모님이나 피해자에게 이제껏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지 못했기에 마치 모든 이야기가 내 얘기이고

작품평

새길의 좋은 점 중 하나가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용기들이 모여 한 권의 책이 되고 공감으로 서로를 위로해 줍니다. 수필을 읽으며 마음을 주고받았군요. 이렇게 용기 있는 모습에서 맑고 청아한 봄날 같은 모습이 가까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부모님 얘기이고 나로 인해 생긴 피해자로 착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새길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만큼 숙연해지고 자신을 반성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뿐 아니다. 그동안 작품 공모를 해보고 싶어 몇 번 써보았으나 자신이 없어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바보 같은 나였다. 그러면서도 항상 새길이 나오길 기다리고 아는 동료의 글이라도 읽을 때면 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다. 이 곳에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새길지는 나의 친구고 마치 연인이나 되듯 기다리곤 한다. 책을 감명 깊게 읽고 나서 옆의 동료에게 읽어보라고 권하는데 시큰둥한 반응이면 기분이 나빠지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만큼 애착이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호에서는 나처럼 처음 공모해 보는 작품이 많아 나도 용기가 났다. 내 글을 보고 뭐라 평할지, 아니면 뽑히기나 할까 조바심이 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용기를 냈다. 그리고 계속을 글을 써보고 싶다.

이번 호는 수필이 그 어느 때보다 부담이 적었다. 가슴이 아린 내용도 비교적 적고 대부분의 봄의 추억이고 물의 이야기이며 세월이 가는 일상의 소소한 얘기를 맛깔스럽게 표현한 글이라 좋았다. 그렇다고 모두가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글들에서 여전히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부모님과의 아픈 과거가 성장하는 내내 떨쳐버릴 수 없는 환경으로 작용하고 그로 인해 직장이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힘겨운 삶을 이어가야만 했던 뼈아픈 내용도 많았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폭행과 학대로 힘들게 성장했던 자신이 성인이 되어도 부모와 비슷한 가난과 과거를 대물림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다.

이번 글들에서는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여려 명이나 되었다. 외국에서의 생활로 생활 여건이 그나마 비교적 괜찮았을 텐데 사람의 욕심이 결국 그들을 이곳으로



내몰았다고 본다. 그리고 이상규님처럼 종교에 귀의했는데 형제들의 어려운 처지와 본인도 징벌방에 있는 등 안타까운 얘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은 용기가 가상하기도 했다.

김효기님의 글에서는 사람을 고쳐 쓸 수가 없을까? 그는 종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신은 존재하지도 않고 만약 존재했었더라도 이미 죽었다고 철학자인 니체의 말을 들먹이며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을 지지하고 현재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 하려고 애쓴다. 징역 살면서 느낀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있는데 시계를 고쳐 쓰듯 사람도 고쳐서 다시 쓴다면 이 세상에 악이란 놈은 분명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로봇처럼 선한 로봇으로 만들고 법에 위반 되지 않는 착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세상이 온다면 말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 각기 다른 개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세상은 항상 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정윤님의 글처럼 아직 봄날을 맞이할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의 인생이든, 밖에서의 인생이든 봄날은 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온다고 썼다. 정말 그럴까. 여기 있는 우리들은 출소 후에도 불투명한 미래가 암울한 것이 현실이다. 항상 따라다니는 족쇄가 우리의 어깨를 누를 것이고 따가운 시선이 우리를 움츠려들게 할 것이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 나에게도 봄날은 올 것이고 찬란한 태양 빛이 비출 것이기에 준비를 해야 한다. 류기호님의 글에서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후회가 약이다' 했는데 또다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력할 것이다. 자주 접견 오시는 부모님께 더 이상은 불효를 저지를 수 없기에, 아니 내 인생의 핑크빛 삶을 위해서라도 노력할 것이다. 마음먹기에 따라 세상은 얼마든지 달라진다고 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성공이 온다고 했다. 새길지 내용처럼 눈물로 후회하는 삶이 아닌 맑고 청아한 봄날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

힘을 내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내 삶이기 때문이다.

"감상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